나의 책 이야기(2011년)

푸른하늘

소개글

목차

1 ● 애도하는 사람(悼む人) --- 텐도 아라타(天童荒太) 5

2 우물안 개구리 8

3 ● 박사가 사랑한 수식 -- 오가와 요코(小川洋子, Ogawa Yoko) 11

4 ● 가면의 고백 --- 미시마 유키오 14

5 ● 닥치고 정치 --- 김어준 17

6 ● 고백 === 미나토 가나에 19

7 ● 깊은 슬픔 --- 신경숙 21

8 ● 태백산맥 --- 조정래 23

9 ● 어둠의 저편(After Dark) --- 무라카미 하루키 26

10 ● 연어 --- 안도현 29

11 ●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 --- 미치오 슈스케 32

12 ● 달팽이 식당 --- 오가와 이토 35

13 ● 안중근 불멸의 기억 --- 이수광 37

14 ● 푸른 그리움(한일 전후세대 100인 시선집) -- 이시환 40

15 ●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 은희경 44

16 ● 삼성을 생각한다 1,2 --- 김용철,편집부 46

17 ● 살고싶은 여자와 하고싶은 일 --- 한수산 52

18 ● 새의선물 --- 은희경 54

19 ● 그여자 전혜린 --- 정도상 57

20 ● 김현구교수의 일본이야기 60

21 ● 강남몽 ---- 황석영 62

22 ● 해변의 카프카(海邊のカフカ) 상, 하---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65

23 ● 일본은 없다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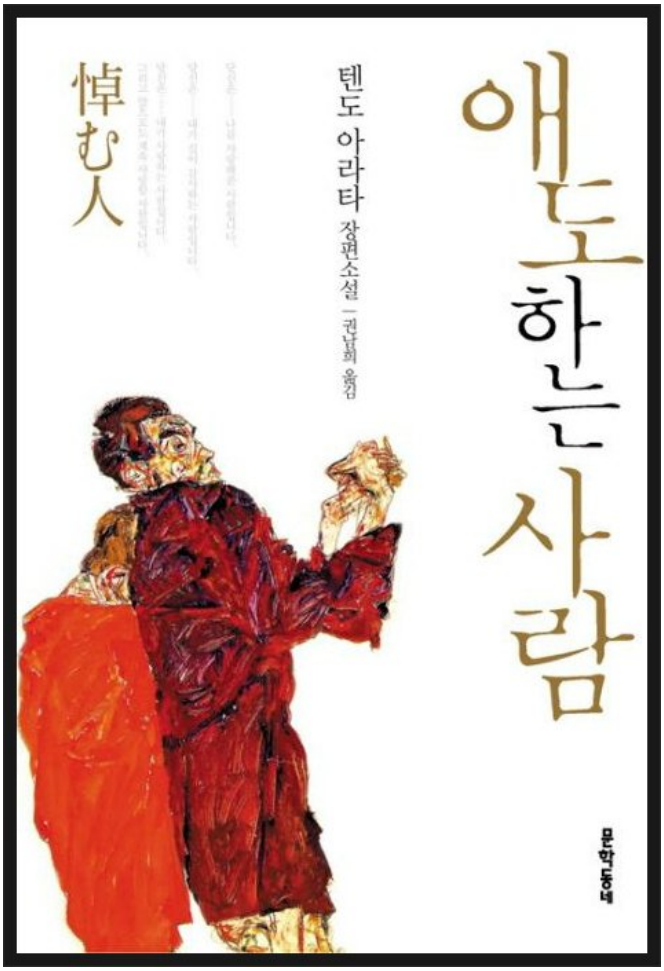
24 그래도 9월이다~~~ 72

25 ● 키친(キチン) --- 요시모토 바나나(Banana Yosimoto) 78

26 ● 지(知)의 정원(庭園) --- 다치바나 다카시,사토 마사루 83
27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6 (인생도처유상수) --- 유홍준 87
28 ● 피안 지날때까지 --- 나쓰메 소세키 (夏目漱石) 95
29 ● 김약국의 딸들 ---- 박경리 98
30 ● 바다와 커피 --- 원재훈 장편소설 100
31 ● 리딩으로 리드하라 --- 이지성 102
32 ● 꽃피는 고래 --- 김형경 장편소설 104
33 ● 3분 고전(古典) --- 박재희 지음,, 107
34 ● 인간의 증명(드라마 로얄 패밀리 원작) --- 모리무라 세이치 109
35 ● 못가 본 길이 더 아름답다 --- 박완서 111

● 애도하는 사람(悼む人) --- 텐도 아라타(天童荒太)

2011.12.21 10:42



책제목 : 애도하는 사람.

지은이 : 텐도 아라타.

출판사 : 문학동네(2010년.2.5- 3쇄2010.5.4로 읽다)

읽은날 : 2011.12월초.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34번째 책

책을 처음 잡았을때 상당히 두툼한 6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었다.

처음에는 두께 때문에 이 책 읽는 시간에 다른 책들을 읽는게 좋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책의 앞과 뒤에 있는 평론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고 이 책을 넘기기 시작했다.

평론에는 "삶과 죽음과 사랑이라는 인간의 삼대 난문을 정면에서 도전했고,

도스토엡스키 뺨치는 이 배짱있는 문학적 모험에 경의를 표한다"고 씌어져 있었다.

그래서 책 두께 만큼이나 무거운 주제를 이 소설에서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궁금했다.

애도하는 사람... 시즈토..바로 이 책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있는 세 사람의 시점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처음에는 그렇고 그런 시시껄렁한 내용들을 취재다니는 주간지 기자 마키노 의 시점,

그는 주간지 기자 특성에 맞게 잡다한 애정행각, 조폭들의 모습 등을 독자 입맛에 맞게

가공하고 포장하는 3류기자 스타일의 사람이다.

두번째로 시즈토의 엄마인 준코의 시점,

암투병을 하며 아들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그녀는 시즈토의 어릴적 이야기며 그가 살아온 삶으로

자기 아들의 삶을 보여준다.

마지막 세번째 남편을 죽이고 괴로워하는 유키오의 시점

남편을 죽인 장소에서 시즈토를 만나고 그와 동행하는 여성이다.

시즈토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죽은 사람에 대해 그 장소에 가서 애도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캐릭터에 좀 의아한 느낌으로 감정이입이 안된 상태로 책을 읽어나갔지만

책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죽어간 사람들,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이야기와

그것을 통해 사람의 삶과 죽음에는 여러가지가 깃들여 있다는 것에 내 마음이 동화되어갔다.

" 죽은 이들을 찾아다니는 동안, 인생의 본질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사는 동안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사랑받고 어떤일로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았는가에 있는게 아닐까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즈토가 고즈미 사쿠야와의 영혼의 대화를 하는 한 대목인데,

위 문장이 바로 작가가 소설속 주인공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일상생활에 지치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지나는 느낌이 들때

이런 책은 많은 도움이 된다. 또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

세세한 일상의 삶의 문제를 벗어나 거대 담론같은 인생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해본다는 것은 결국 소소한 문제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고민하며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각성을 시켜준다. 더불어 근본적 고민에 접근할 수록 삶이 풍요로워지고 가치있는 삶을 살 수있다.

그러나 결국 커다란 담론도 세세한 일상으로부터 연결되어 나오고

거기에 해답이 있기때문에 하루하루를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리고 주변의 사람과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삶일 지라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았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게

이 책을 읽은 나의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다...

우물안 개구리

2011.12.20 17:23



얼마 남지않은 일본 생활을 정리할 때가 되니 떠오른 시와 노래...

우물안 개구리

-박종화 -

어쩌면 나는 우물 안 개구리

알면서도 이 길 포기할 순 없었어.

넓은 하늘을 다 볼 순 없어도

눈에 어린 것만이라도 껴안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은 커라.

니 말처럼 난 우물 안 개구리

그런 내가 싫어 기어 올라갔었어.

처음 만나는 벌판에 떠밀려

하늘은 이미 내 가슴에 사라지고 없었어.

난 슬펐어 정말

붉게 타버린 동그란 하늘 그 작은 하늘 보고 싶어

세상은 그래 다 그런단 것을 알아 버린 순간 우물 안이 좋아졌어

넓은 하늘을 다 볼 순 없어도

눈에 어린 것만이라도 껴안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은 커라.

붉게 타버린 동그란 하늘, 그 작은 하늘 사랑했어~!

박종화 시인의 "우물안 개구리" 라는 시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종화 시인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 다닐적 많이 따라 불렀던 박종화씨가 부른 '지리산'이라는 노래는 아직도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김지하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인데
" 나는 저 산만 보면 피가 끓는다. 눈 덮힌 저 산만 보면,
  지금도 흐를 그 붉은피 내가슴에 살아 솟는다....."

통상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하면 자기 틀만 고집하고 시야와 식견이 좁은 사람,
크고 넓은 것을 보지 못하고 조그만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시(詩)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개인이 담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세상은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라고 하니까 우물을 기어올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가 알아왔던 그리고 사랑했던 세상이 사라지고 맙니다.
새로운 세상이 우물안 개구리에게는 깨달음과 발전일 수도 있지만 상실과 실망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넓은 하늘을 다 볼 순 없어도

눈에 어린 것만이라도 껴안을 수 있다면
나의 삶은 커라."
여기서 '나의 삶은 커라' 이 대목이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큰 삶은 무엇일까?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무엇이 의미있는 삶일까? 모두가 고민하는 것이고,
큰 세상을 보는 것,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나의 조그만 하늘을 소중하게 느끼는 것,
내 눈에 어리는 주변의 것들을 껴안는 게 자기에게는 더 큰 삶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많은 것들, 평소에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의 소중한 가치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물 밖에 있는 다른 것들과 마주쳤을 때입니다.

바야흐로 도쿄는 가을이 한창이지만 곧 이제 겨울이 시작될 듯 합니다.
한국보다는 한두 달 정도 늦은 계절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가을이라는 시간은 한 공간에서도 풍요와 허전함이라는 상반의 관계를 함께 보여줍니다.
누렇게 익은 들판과 추수가 끝난 후 텅비게 되는 들판..
이처럼 우리 주변은 비슷한 것들이 상반되게 존재하기도 하고,
내가 위치한 공간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더 큰 세상을 꿈꾸고 많은 것을 배우고 얻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자기 안의 것을 먼저 충실히 채우고 바로 옆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껴안을 수 있는 자세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이 시를 읽으며 느껴봅니다.

이제 일본생활을 정리해야될 시간이 다가오니 많은 것을 겪고 배우기도 했지만
많은 것이 아쉽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는 노래로도 만들어졌는데 (노래: 안치환) 안치환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좋습니다.
노래들으면서 개구리 뒷다리 안주에 소주 한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박사가 사랑한 수식 -- 오가와 요코(小川洋子, Ogawa Yoko)

2011.12.03 07:49



책제목 : 博士の愛した数式 (박사가 사랑한 수식)

지은이 : 오가와 요코(小川洋子, Ogawa Yoko)

출판사 : 도서출판 이레(2004.7.5----2010.5월 24쇄 본으로 읽다)

읽은날 : 2011.12월초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빌려본 33번째 책.

일본에서 2003년에 출간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책.

한국에서는 곧바로 2004년에 번역되어 지금까지 여러 독자층으로 부터 줄기차게 사랑받고 있는 책인 듯 하다.

나도 읽고나서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읽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책에 나오는 수식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 중3 ~ 고등학교 이상되어야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그리고 주변사람들에게 꼭 한번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의 인기는 영화로도 이어졌는데 2006년도에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져 좋은 호평을 받은 듯하다.

지난 과거를 80분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유별난 수학자 ,, 여기서는 박사로 호칭됨,,, 와 파출부,

그리고 파출부 혼자서 기르는 아이(루트), 그리고 또 박사의 형수인 미망인,,

등장인물은 그게 전부다. 물론 주변에 스쳐지나가는 소재로 쓰인 몇사람이 있긴 하지만

큰 줄기는 이 사람들로만 이어져있다. 그래서 소설인 지나치게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느낌이든다.

책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수의 관계와 수식들,,

실생활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수학의 숫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표현하는지,

그게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여준다.

진정한 직선, 허수에 대해 설명할때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 물질이나 자연현상, 또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한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수학은 그 모습을 해명하고 표현할 수 있어. 아무것도 그걸 방해할 순 없지."

오일러의 공식, 페르마의 정리, 우애수와 완전수 등등 수학에 대한 흥미와 더불어

수학의 세계가 어떻게 이 세계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수학을 통해서 보여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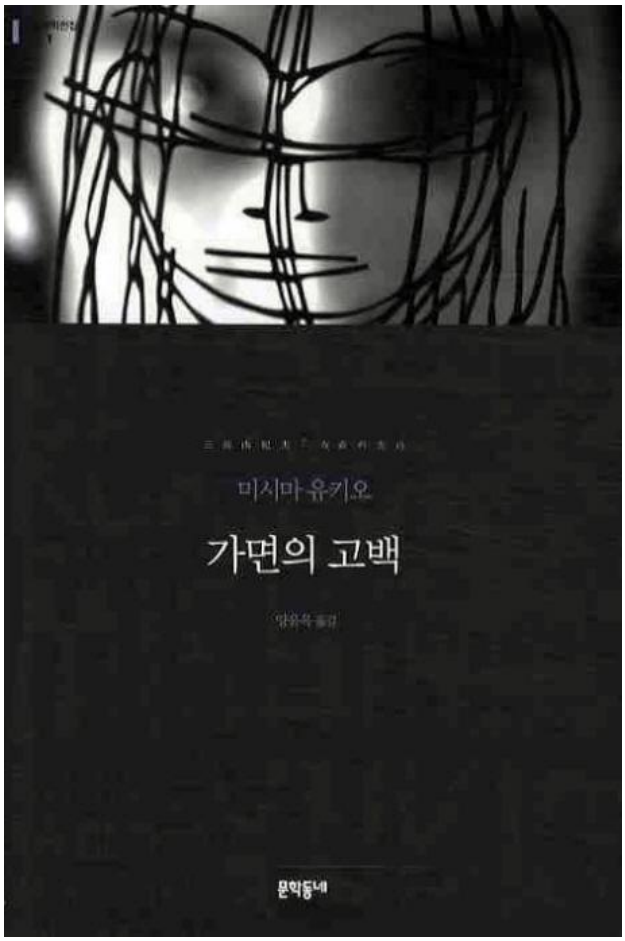
정말 좋은 책이다. 그 어려운 공식들이 이해도 쉽고 ----

정말 이 세상이 박사가 보는 세상처럼 수학으로만 표현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본다...

여러가지 인간, 사회 문제가 좀 더 간결해지지 않을까,,,

● 가면의 고백 --- 미시마 유키오

2011.11.28 16:56



책제목 : 가면의 고백(假面の告白)

지은이 : 미시마 유키오

출판사 : 문학동네 2009.12.15

읽은날 : 2011.11월 도쿄에서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32번째 책

우선 작가의 독특한 삶이 이 책을 읽게 만들었다.

1925년 전쟁의 와중에 태어나 1970년에 45세의 나이로 일본 자위대의 궐기를 촉구하면서 할복자살한

극우적 삶을 보여준 특이한 이력과 젊어서 이룩한 그의 작품세계가 뛰어나다는 평이 많아서

그의 면면이 궁금중을 유발시켰다.

그런데 그의 가장 대표작이라는 이 책에서는 그의 정치관, 사상 이런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의 성장기를 고백하는 문학적인 면 밖에 찾아볼 수 없었다.

인간이 자기 삶을 고백한다는 것,,,그것도 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성당에서 고백성사한다거나, 애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이 평가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평론에 심미주의적 세계관, 문체라고 평을 해놓았던데,,

책을 읽는 동안 자신의 내면의 은밀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리고 숨기없이 고백해나가는 면이

독특하다랄까..그랬다.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자신이 겪었던 성적 정체성, 동성애의 문제가

이 고백의 핵심이 아닐까 싶다.

어쨌든 소설이라는 형식을 띄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자신이 그 깊은 내면 속을 파헤쳐나가면서

표현한 부분들은 사실성이 뛰어나게 느껴진다. 이런것이 고백문학의 정수라고 하는건가,,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모양이다.

할아버지때부터 아버지, 자신까지 3대째 도쿄대 법학부 출신인 작가는

60년대말 동경대를 점거한 전공투와 1대 300으로 대강당에 모여서 역사적인 격론을 벌리는데 (작가는 물론 극우파를 대표),

이것도 나중에 자신이 책으로 엮어 나온게 있다는데 내용이 궁금하다.

그 책에서는 30년 후 당시 미시마와 격론을 벌인 멤버들이 다시 재회하여,

20대의 질풍노도기를 되돌아보면서 이 토론을 반추하고 평가하였으며, 자신들을 반성하고 성찰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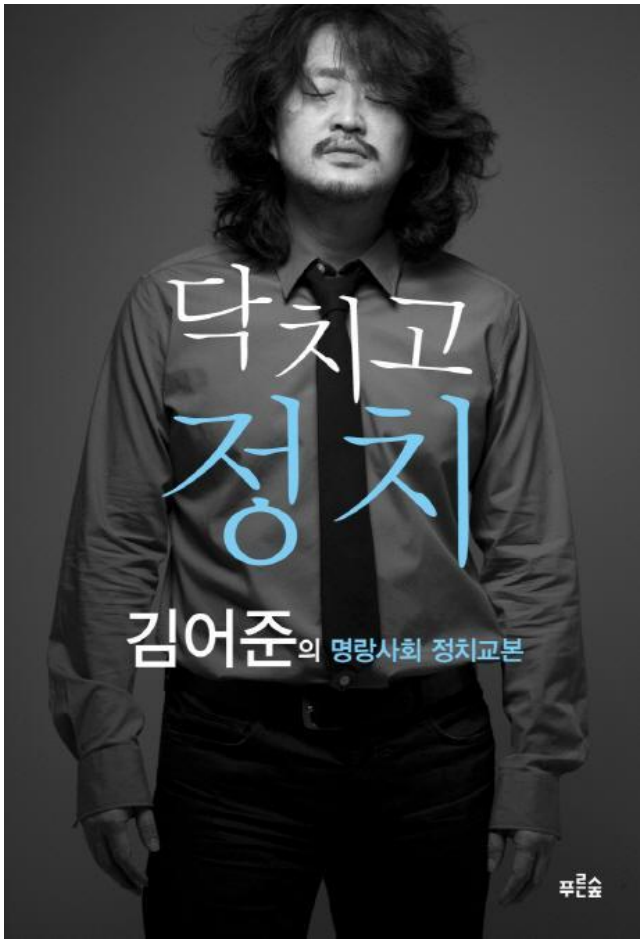
---- 아래는 인터넷에 있는 책소개 ---
이 책은 전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양 극단의 격론에서부터 그러한 만남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격론을 바라보는 30년 후의 관점을 함께 담고 있다.

이들은 좌파와 우파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를 뿌리부터 잘못된 근대의 쌍둥이 질병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근대 자체를 넘어서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일본 현대 정치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천황제에 대한 미시마의 독특한 해석과 함께,
현대 일본 전체에 대한 양 극단의 흥미진진한 논쟁을 만나볼 수 있다.

우리도 이런 생산적인 논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닥치고 정치 --- 김어준

2011.11.25 16:49



책이름 : 닥치고 정치
지은이 : 김어준, 지승호
출판사 : 푸른숲 (2011.10.10)
읽은날 : 2011.11월 중순즈음 -- 도쿄에서

나꼼수로 요즘 한창 유명세를 타고 있는 딴지일보의 총수 김어준의 새책이다.

한국에서 오는 사람편에 받아보았다. 사실 요즘 나꼼수 다음편 나오기 기다리는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그중 한명이 아닐까 싶다. 시원시원하고 재미있고, 언론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게릴라 식으로

쏟아내는 그들의 입담이 옛날 라디오 듣는 느낌을 다시 살려준다고나 할까,,,

요즘 사실과 풍자를 넘어다니는 경계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잘 헤쳐나가길

바라고, 인기를 얻으면서 알게모르게 들어오는 탄압도 잘 이겨내리라 본다.

김어준은 참 창의적인 사람이란 생각이 먼저 든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보편화될때 '딴지일보'라는 것을 만들어 공전의 히트를 치더니

이제 스마트 폰으로 열린 공간에 '나꼼수'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안다고 해야되나,,,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의 식견을 인터뷰어와 대담하는 식으로 쭉 풀어놓았는데

나꼼수에서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책값이 좀 아까웠다. 진짜로 아까운게 아니라 책을 너무 빨리 읽었기 때문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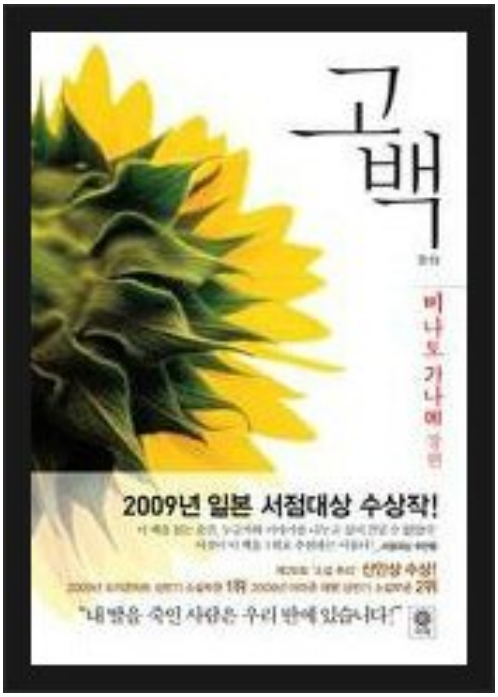
책을 들자마자 하루도 안걸려 쭉 다 읽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만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정치에 대해 썰을 풀어놓았다고 보면 된다.

하여튼 재미있다.. 그의 '씨바' 도 졸라 재밌다...

● 고백 === 미나토 가나에

2011.11.07 01:04



책이름 : 고백.(告白)
저　자 : 미나토 가나에.
출판사 : 비채 (2009.10.13)
읽은날 : 2011.11.4~5 (도쿄에서)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빌려읽은 31번째 책.

고백....공포영화 또는 호러(?) 영화류로 분류되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게 된 책이다.

영화는 안보았는데 일본 공포영화가 '링'이후로 심적, 분위기적 공포라는 것에 아주 탁월한 면이 있다는거

인정하는데 이번 책은 그런 거 생각안하고 그냥 집어든 책이었더랬는데 알고보니 그 영화의 원본이었다.

하여튼 최근 일본 책 읽어보다 보니 일본 소설중에서도 미스터리, 추리라는 분야가 하나의 분야로서

상당히 발달되었다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게

작가도 많고 읽는사람도 많고 수준과 완성도가 꽤 높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책의 구성은 채프터별로 사건의 당사자, 관찰자가 각자 고백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원의 제목이 상당히 재밌다.

성직자聖職者
순교자殉教者
자애자慈愛者
구도자求道者
신봉자信奉者
전도자傳道者

주제자체도 그렇고 사건의 과정도 상당히 파격적이고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

일본의 현실이 이런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소설은 소설일뿐이라 생각하면서도

책 읽는 동안 집중도와 몰입도는 대단했다. 구성도 그렇고 문장속에서 뿜어져나오는 세밀함이랄까..

그리고 또 하나, 미스터리와 공포형식을 빌렸지만 책 내용에는

일본 현실의 여러 문제점을 잘 드러내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미스터리는 주로 가해자 또는 살인자가 누군인지 끝까지 밝히지 않고 궁금하게 만드는게 일반적인데

이 책은 누가 범인인지 처음부터 공개하고 시작한다.

그리고 각자의 고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긴장감이나 등장인물들의 현실감과 대화가

생생하게 다가오게 만든 훌륭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마지막이 뭔가 좀 석연치 않다랄까...독자인 나의 입장으로는 그랬다.

 고백,,,, 영화도 한번 볼까 생각해봤는데 확실히 책으로 읽고나면 영화는 안보는게 나았던게

나의 경험상 맞기에 고민중...

● 깊은 슬픔 --- 신경숙

2011.11.03 08:25



책 제목 : 깊은슬픔 1,2권
저　자 : 신경숙.
출판사 : 문학동네(1994.3.28출간,1996.1.10.42쇄 본으로 읽다)
읽은날 : 2011.10월말부터 11월초 도쿄에서.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빌려읽은 29~30번째 책.

깊은 슬픔이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얕은 슬픔은 있는 것일까? 책 제목을 보며 처음했던 생각이었다.

'깊다'는 단어는 재미있는 단어라는 생각을 해본다.

'깊다' '깊은' 이라는 단어는 왠지 모르게 그 어감으로 인해 연상되는 것들이,,

심연의 바다를 떠올리게도 하고, 마음 깊은 곳 자기 혼자만의 상처같은게 건드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우리나라 산을 설명할때 '깊은 산'이라고 설명하니까 서양사람 왈, 산은 높은 산이고 계곡이 깊은 계곡이 있는 거라고,

잘못 말한 거 아니냐고 수정해주길래 한국사람이 '깊은 산'의 의미를 설명하기 힘들었다는 걸

다른 책에서 읽었는데 그걸 보면

우리 말 중에 '깊다'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의 '깊다'라는 단어보다 더 깊고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즉 우리말의 '깊다'는 수직적 깊이를 봤을때 '깊다' 뿐만아니라 수평적, 3차원의 입체적 공간개념에서도 깊이를

가늠해서 쓴다는 생각이다. 내가 언어학자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다.

책 제목 '깊은 슬픔' 때문에 서두가 너무 장황해지고 길어진 느낌이다..

이 책은 1994년에 출간된 꽤 오래된 책인데 신경숙 작가님의 초기 장편소설이라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리는 책이다.

게다가 요즈음 신경숙님의 다른 책'어머니'가 미국 등에서 큰 반응이 있으면서

그의 다른 책들이 다시 출간되기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인기몰이도 하는 듯하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아니 불편했다기 보다는 내 마음속 깊은 곳이 계속 건드려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신경숙의 소설은 읽다보면 늘 슬퍼지고 가슴이 아련해지고 하는데 특히 이책에서는 더욱

상처받은 영혼들의 방황하는 모습이 절절한데 그 상처가 덧나고 커지고 치유되지 못하면서

주인공들 자신이 삶에서 안고가야하는 무게에 짓눌린 느낌이 들었다.

이슬어지라는 마을에서 자라난 친구들,,한쪽만 바라보는 사랑과 사람,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사람들과 그 기억들,,상처와 결핍을 애처롭게 호소하는 듯한 문구와 말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치유받고 위로받는 반면 또 삶이라는게 그리 단순하지 않아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등등...

..... 깊은 슬픔, 생각컨데 그건 사람관계에서 오는 슬픔일 수 밖에 없는 슬픔인데

너무 깊으면 헤어나오질 못하니 그건 물속이나 산속이나 사람 마음속이나 매 일반인 듯 하다....

● 태백산맥 --- 조정래

2011.10.22 07:25





제목 : 태백산맥 1권~10권.

저자 : 조정래.

출판사 : 한길사 1983~1989 (1994년판으로 읽다).

읽은날 : 2011.10.6 ~21

도쿄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19~28번째 책. (총 10권).

태백산맥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않고 완독했다.

예전에 80년대에 띄엄띄엄 읽었기에 늘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에 도서관에서 차근차근 빌려서

다 읽을 수 있었다. 물론 80년대에 읽었을때의 느낌과 지금 다 읽고 난 느낌은 많이 다르다.

처음 읽었을 때에는 내가 모르던 역사적 사실 같은것에 놀라고 이렇게 장대한 내용을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생동감있게 그려낸 것에 감동하고 했는데,

이번에 읽을때에는 한국 현대사의 한 대목을 역사책이 아닌 소설책으로 읽는 느낌이랄까,,,

좀 더 냉정하게 사건과 인물에 집중하며 읽게된 것 같다.

그리고 말이 10권이지 요즘 나온 책 분량 기준으로 보면 약 30권 정도 될 만한 분량의 내용이다.

요즘 책은 읽기쉽게 활자도 크고 행간도 넓어서인지 요즘 편집출간된 책 보다가

이 책 편집된 것 보면 글자가 빽빽하기 그지없다.

여순사건부터 이책은 시작되는데 사실 그 사건의 시발점이 된 제주도4.3 사건과

4.3사건의 시발점이된 남한단독선거, 그것의 시발점이 된 남북분단, 그것의 원인이 된

미국과 소련의 주둔, 해방, 식민지 시절,,,,,하여튼 원인을 찾아가다보면 역사의 큰줄기를

훑어올라갈수 밖에 없는데 ,,,

그러한 배경들이 인물들의 삶 등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중심은 역시 해방후 빨치산 투쟁을 벌리다 사라져간, 그래서 오랜시간동안

우리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또는 의도적으로 방기해온 그 역사를 조명해놓았다는데 있지 않을까..

벌교지방의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와 정감있는 대화들,

이념과 민족문제로부터 그 어느누구도 자유로울수 없던 시대, 외세에 의해 침략받고

외부의 힘에 의해 우리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고 민족의 척박한 삶이 이어지던 그 시대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염상진, 하대치, 정하섭, 김범우, 손승우, 소화, 외서댁, 들목댁, 강동기, 솥뚜겅, 조원제, 염상구, 정원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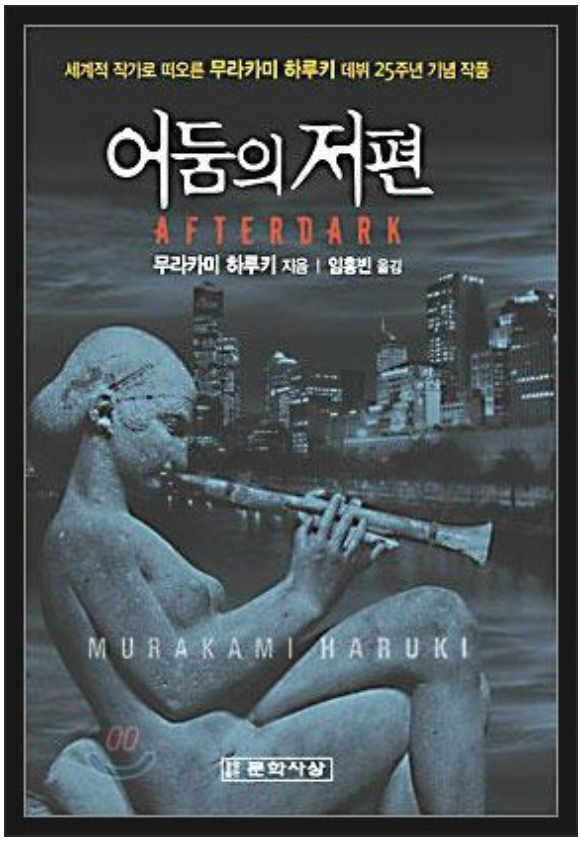
친일지주들, 토벌대장, 결찰서장, 소작농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등등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왜 그런 삶을 선택했는지

분단이라는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의 역사앞에서 많은것을 생각해보게 한다.

● 어둠의 저편(After Dark) --- 무라카미 하루키

2011.10.12 12:02



책이름 : 어둠의 저편.
지은이 : 무라카미 하루키.
출판사 : 문학사상(2005.5.26 초판35쇄-2007.11.1).
읽은날 : 2011.10.4~5(도쿄에서).

네리마구립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빌려본 18번째 책.

내가 읽은게 35쇄인걸 보면 책 무지 많이 팔렸구나 생각이든다. 그 이후로 몇 쇄 더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이 책 출판사에서 첨부해놓은 후기를 읽어보니 이 소설은 하루키가 데뷔25주년 기념 작품으로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라고 한다.

하루키는 자주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와 같은 총합소설을 쓰고 싶다고 했단다.

그래서 이 책이 그 총합소설을 지향하며 창작한 것이라는데

총합소설이란 하루키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다양한 인물이 저마다 다른 사연들 들고나와

서로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삶의 열기를 내뿜고, 새로운 가치를 낳게하는,

명작으로 오래 남을 만한 작품이라고 한다.

하여튼 내 짧은 소견으로는 명작소설로써 오래 남을 작품, 다양한 인물을 통해 삶을 잘 보여주고 싶다,

뭐 이정도로 이해되는데,

이 책 읽다보면 그냥 소설로 읽기에는 난해한 면이 있다. 그냥 줄거리를 따라 읽기는 무리가 없는데

작가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하기때문이다.

그래서 뒤에 있는 평론이나 해설을 읽고나서야 '아! 이런 뜻이구나'하고 생각이 들었으니,,

나의 해독능력이 떨어지거나 하루키의 소설이 독자에게 그렇게 친절한 소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현실과는 좀 붕 떠 있는 느낌들,,그건 하루키 소설 어디에서나 느끼는건데

좀 비현실적인 주인공들, 그리고 상징적 현상,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꼭 배경으로 깔리는

그의 해박한 음악 지식들,,,, 하루키 소설을 어느정도 읽다보니 이제는 이런 것에 익숙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 소설은 단지 오후 11시에 시작해서 오전 6시 즈음까지의 하루도 안되는 시간속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속에 현대사회의 문제점과 어떤 끈으로 연결된 인간관계, 폭력,

그리고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것처럼 '인간에게 밤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대화와 그들이 처한 상황속에서 보여준다.

기억에 남는 한 대목....(평론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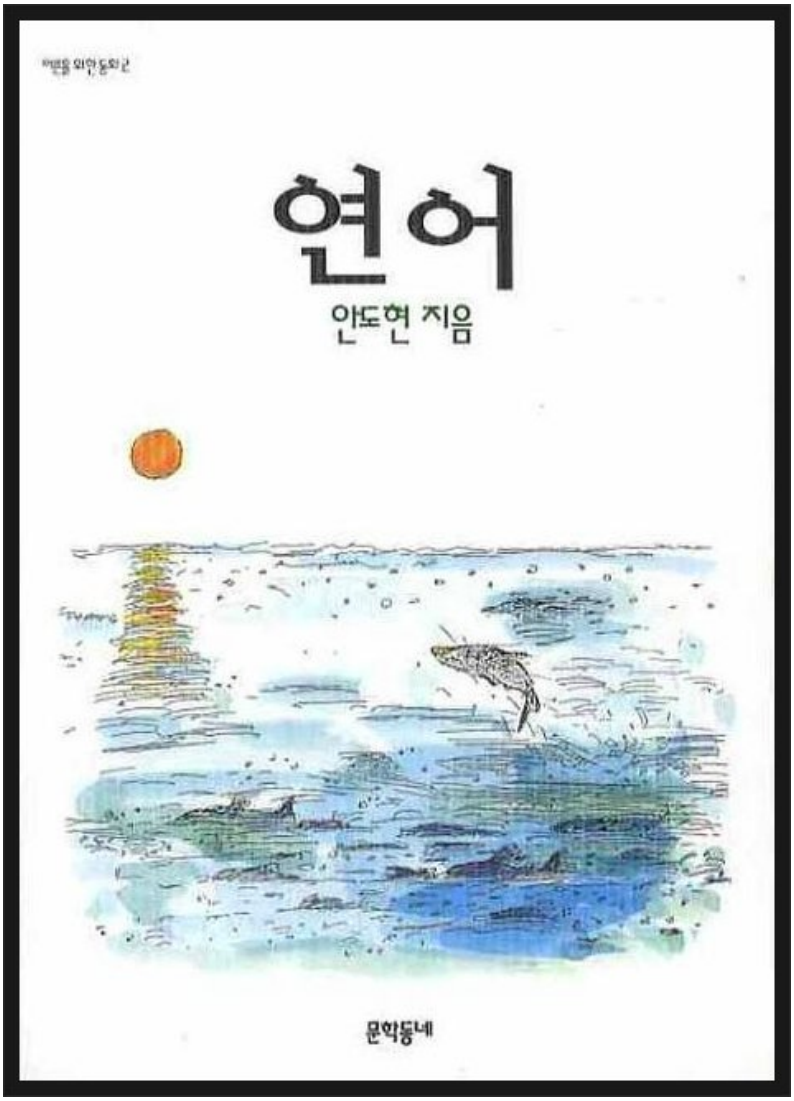
현대 문명에 가려진 몸의 실존적 의미---

"니체와 프로이트 이후의 철학은 영혼 대신 몸의 철학이었으나,

기술의 발달은 밤조차 빼앗고 몸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 연어 --- 안도현

2011.10.12 10:55



책이름 : 연어.
지은이 : 안도현
출판사 : 문학동네(2008.4.15)
읽은날 : 2011.10.4~5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17번째 책..

뭐 너무 유명한 책이라 이제서야 읽었다는게 좀 미안할 정도인 책이다.

사실 좀 유명한 책은 그 당시가 아니면 다시 찾아 읽기 힘든 점이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최신의 책에 읽어야할 책 목록들은 정리해보기도 전에 쌓여가고,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서점, 또는 어디어디 추천도서에서도 최신 책 위주다보니 찾아보기 힘들게 되기도 하고,

때지난 느낌이라 손에 잡기 힘든점도 있는데 여기 일본 도서관에 떡하니 꽂혀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 책은 어른을 위한 동화같은 책, 다시말한면 생택쥐베리의 '어린왕자'같은 느낌의 책이다.

하지만 어린왕자보다 훨씬 더 우리 정서에 맞고 느낌도 더 진하다.

한때 강산에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라는 노래를 따라 불러보곤 했는데,,

회귀성 물고기인 연어를 통해 삶의 가치를 생각해보게하는 책... 아이들에게도 꼭 읽히고 싶은 책이다.

읽고나니 내가 가야할 길, 나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책 다읽고 노래를 다시 듣는다,,,,

- 노래 -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 부터인가 걸어 걸어 걸어 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2. 여러 갈래길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 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 밖에 없는 꼬부라진길 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걸어 걸어 가다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3. 여러 갈래길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길 일지라도
포기할순 없는거야 걸어 걸어 걸어 가다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4.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 가야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보면 걸어 걸어 걸어 가다보면
어느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rap.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어깨 떨구고 한숨짓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 --- 미치오 슈스케

2011.10.05 16:31



책이름 :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向日葵の咲かない夏 (ひまわりのさかないなつ)).

지은이 : 미치오 슈스케.

출판사 : 들녘(초판2009.9.30-- 초판5쇄 2010.4.23로 읽다).

읽은날 : 2011.10.2 (도쿄에서)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빌려본 열여섯번째 책.

분류불가, 설명불가, 스포일러 엄금, 초절정 미스터리,,,, 이책의 표지에 붙어있는 선전문구들 인데

과히 틀린말은 아니다. 반전에 반전을 더하고 책에서 손을 뗄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책은

미스터리 소설, 추리소설로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다른 이면의 세계를 본 느낌이 들게한다.

드라마틱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라고 할까,,,

환생이라는 요소를 처음부터 삽입하여 이거 뭐 환타지 소설인가 생각하게 만들더니

끝까지 여러인물들의 특성과 행동 등 치밀한 장치를 통해

이 사람이 범인인가 싶으면 어느새 다른 인물이 용의자가 되고

또 다시 그 용의자에서 촛점이 반전되어 다른 인물로 옮겨가는 이런 순환적 연결을 통해

추리소설적 읽는 재미를 배가해주었다.

그리고 '이지매'라든가, 변태, 어릴적 트라우마가 오래동안 행동을 지배하는 인간의 모습 등

사회현상 고발적인 면이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인데 흔히 영국의 셜록홈즈는 경험론적 수사를 전개해서

영국의 경험론을 상징하고

프랑스나 유럽 대륙의 탐정들은 연역적 방법으로

대륙 합리론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 추리 소설은 인식의 주관성에 의지하는 트릭이 많다고 한다.

같은 사건, 사물을 보고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거나

독자 입장에서 인식하는 바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책도 내가 읽은 바가 다른 사람이 읽는 것과 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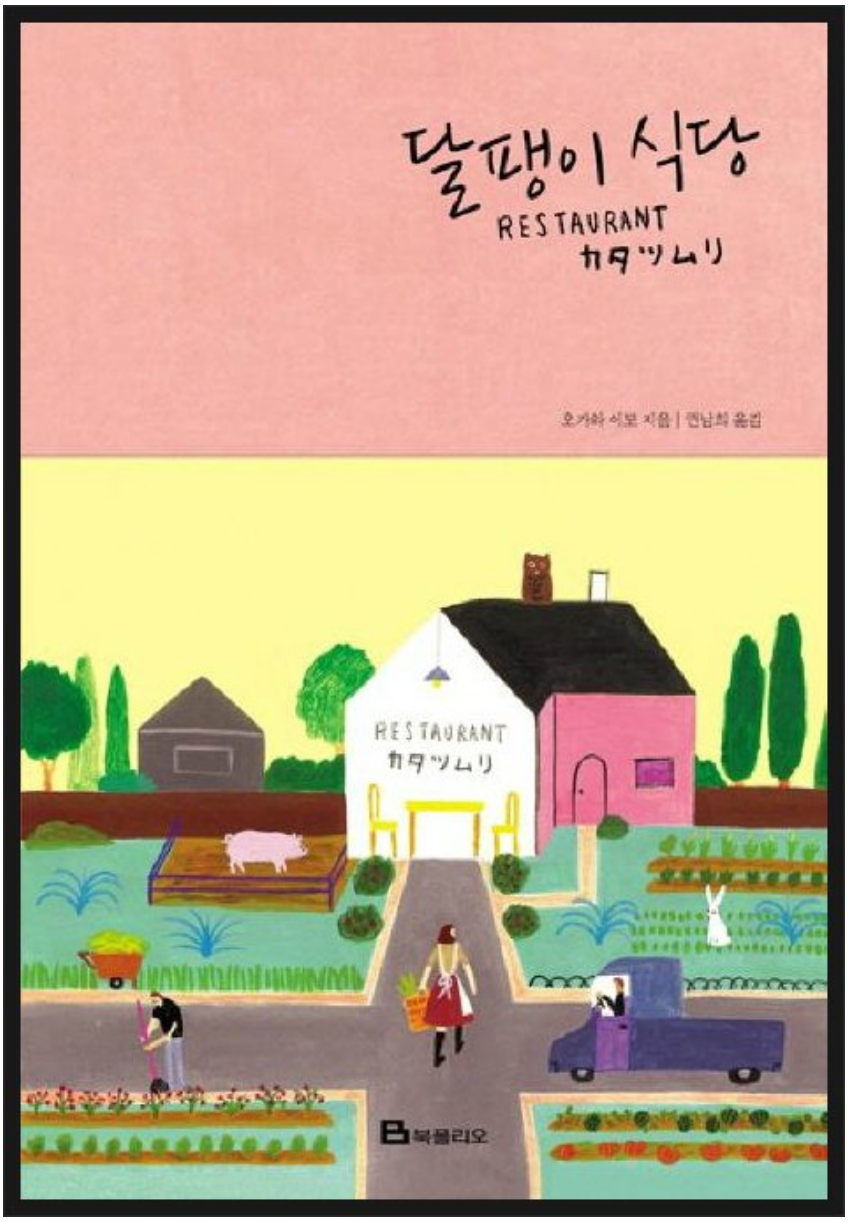
환생으로 등장한 인물들이 사실인지, 주인공의 환상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소설의 내용과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

-- 미치오 슈스케, 이 작가는 미스터리 소설가로서 상당히 유명한 작가인 모양인데 앞으로 그의 책을 더 만나고 싶다....

● 달팽이 식당 --- 오가와 이토

2011.10.02 22:25



책제목 : 달팽이 식당
지은이 : 오가와 이토(小川糸 | Ogawa Ito)
출판사 : 북폴리오(2010.1.10-초판1쇄, 2010.6.10-초판3쇄로 읽다)
읽은날 : 2011.10.1(도쿄에서)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빌린 열다섯번째책

달팽이를 일본어로 かたつむり(카타쓰무리)라고 한다. 이 책에서 단어 하나 배웠다.

이 책은 너무 예쁘고 귀엽고 아름다운 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위에서 보듯이 표지그림도 그렇지만

내용도 가벼우면서도 무겁고, 흥겨우면서도 슬프고, 주변의 일상을 이야기하면서도 삶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

책 다 읽고나서 아이들이 읽어도 좋겠다 싶어서 우리 둘째(초등5)한테 읽으라고 권했는데

처음에는 좀 재미있게 읽는 것 같더니 이네 모른 단어가 많고 이해가 좀 힘들다고 손을 놓은 것 같다.

성인적 요소가 조금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읽어도 손색없는 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없다. 이 책은 일본에서도 스테디 셀러로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해서

책의 감동을 확인할겸해서 영화도 보았는데 아무래도 영화는 책보다 약하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매체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지만 화면으로 전달하기에는 감정의 섬세함과 장면의 묘사가

글로 표현되는 책만 못하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이 책의 핵심내용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리와 식당이라는 요소가

주인공의 가정사와 시골마을 사람들속에서 상당히 설득력있게, 때로는 감동적으로 다가오기때문에

좋은책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다....

나도 요리를 좋아하는 편인데 앞으로도 시간이 되는대로 새로운 그리고 맛있는 요리에 도전해보고 싶다.

사실 요리라는게 여러가지 요소가 버무려지는데 그 중에서도 만든사람의 정성, 그리고 먹을 사람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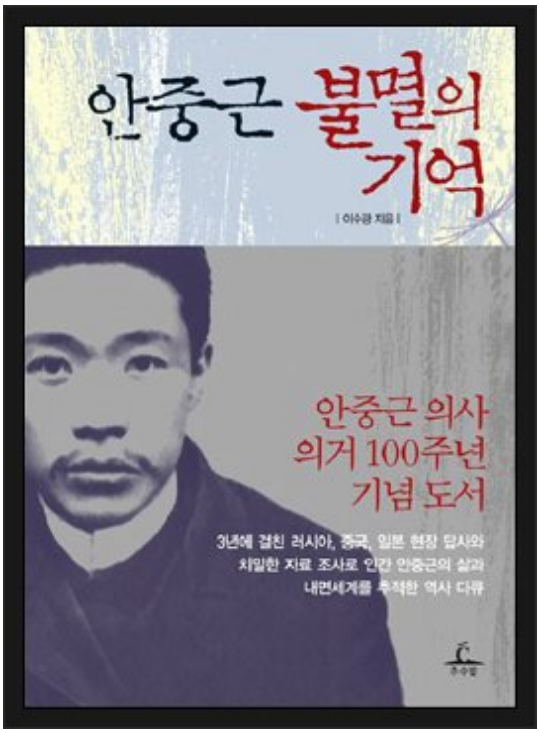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재료등, 이런 관계들이 요리라는 그릇 속에 잘 담겨져 맛을 내게 된다는 사실,,

요리속에 담긴 이런 인간관계, 자연과의 관계, 먹는것이 곧 사는것이니 철학의 문제까지 잘 버무려지는 것

이게 바로 음식 또는 요리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이 아닐까...

● 안중근 불멸의 기억 --- 이수광

2011.10.02 21:46



책제목 : 안중근 불멸의 기억
지은이 : 이수광
출판사 : 추수밭(2009.6.30 초판, 2010.8.10 1판4쇄로 읽다)
읽은날 : 2011.9.29 (도쿄의 가을초입에)

도쿄 네리마구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빌려본 열네번째 책.

일본 도서관에서 안중근열사의 책을 빌려본다는게 뭔가 야릇한 느낌이다.

하여튼 한국에서도 잘 빌려보지 않을 것같은 책을 여기서 빌려보게 되었다. 여기에 그 책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얼마전엔가 누군가 안중근 열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독립운동했다고 이야기하길래 웃고 말았는데,

뭐 요즘 나도 역사적인 사건들 헷갈리긴 마찬가지라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세분의 독립투사들을 국사책에서 수험용으로 잠깐 배우다 보니

세사람이 섞여서 기억되는 면이 있다. 누가 총으로 쏘았는지, 누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는지,

어느 열사가 어느 시기에 누구를 저격하고 독립투쟁을 벌린건지 등등..

그 시대의 절실함과 목숨을 건 의사, 시대의 의미는 단지 빛바랜 사진처럼 남아있을 뿐일까?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책을 보면서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기 힘들었다.

요즘으로 보면 적은 나이인 서른두살의 나이에 생을 던진 한 남자의 이야기,

사형선고가 내린 죽음의 문턱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토오 히로부미의 15가지 죄목을 줄줄이 논하며 '사형보다 더한 벌은 없느냐'고

당당히 외칠수 있는 투사, 바로 안중근 열사의 이야기를 픽션과 약간의 이야기(소설적 요소)를 가미하고,

그의 행적이 남아 있는 곳(하얼삔, 블라디보스톡, 용정, 여순, 용정 등)을 찾아다니는

작가의 기행문 형식까지 섞어서 현재 그 지방의 사진까지 칼라로 넣어

당시와 현재의 시간차까지 느끼게 하는 그런 책이었다.

공은 삼한을 뒤덮고 이름은 만국에 떨치나니
백세의 삶은 아니나 죽어서 천추에 드러나리
약한 나라 죄인이요, 강한 나라 재상이라
그래도 처지를 바꿔놓으니 이등도 죄인이라.

중국의 국부로 불리는 '손문'이 당시 지은 안중근에 대한 시라고 한다.

의거이후 조선보다 중국을 비롯하여 서구 여러나라에서 더 많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1909년 의거를 행하고 1910년 순국을 하셨으니 지금으로부터 100 년전의 일인데,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변해 해방은 되었지만 그의 흔적조차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유골을 아직도 못찾음)

아직까지 친일의 역사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나라마저 분단된 상태로 이어가고 있으니 ,

제대로 된 역사에 대한 열망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에 대해 다시한번 존경을 보낼 뿐이다....

***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감옥에 있을때 그를 지키던 일본인 병사인 '치바 도시바 상병'이 그의 인품에 매료되어

전쟁후에 일본의 고향에 돌아가서도 그가 써준 글씨(유묵)와 위패를 평생 모시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봉공하였다고한다.

그가 사망(1934년)한 후에는 부인에게 유언을 남겨 그 부인이 아침저녁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합장하고 기도했으며,

그 부인이 사망(1965년)한 후에는 그 딸이 다이린지(大林寺)라는 절에 모시고 봉공했다고 한다.

결국 1979년 서울에서 〈안중근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자 그 유족이 귀중한 유묵(글씨)을 기증하여

지금은 안중근 기념관에 전시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마지막 분분에 그 일본인의 고향땅을 찾아가서 해마다 그 마을과

절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느낀 소회문이 가슴에 오래 오래 남는다.

"한국인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안중근을 일본인들이 기억하고 해마다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작은 감동을 받았다."

● 푸른 그리움(한일 전후세대 100인 시선집) -- 이시환

2011.09.28 10:48



-- 책 표지 사진이 인터넷에 없어 우리 집앞에서 얼마전에 찍은 가을하늘 사진으로 올려본다.제목하고 어울리려나?

책제목 : 푸른 그리움(광복 50주년기념 한일 전후세대 100인 시선집)
저　자 : 편자 - 이시환,마루치 마모루/ 역자 - 한성례
출판사 : 세림(1995.8.10)
읽은날 : 20111.9월초부터 말까지

네리마구립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빌려본 13번째 책이다.

우리나라 말에 있는 '푸르다' '푸른' 의 말 뜻은 파랗다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준다.

즉 파란색계열, 녹색,파란색,하늘색,감청색 다 포함해서 푸르다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요즘처럼 맑은 가을하늘이나 깊은 바다, 풀의 빛깔과 같이 밝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단어다.

일본도 비슷한데 아오이(靑파랗다)라는 단어가 있고

미도리(緑)가 녹색, 그린을 뜻하지만 미도리라는 단어가 푸르다 또는 파란개념의 느낌으로 쓰는 단어같다.

(물론 내 일어실력이 미천한 관계로 정확하진 않다.)

어쨌든 이 책제목 '푸른 그리움'은 시(詩)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좋은 제목이다.

이 책은 1995년 광복 50년을 기념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패전 또는 종전 50년) 나온

한국과 일본의 전후 시인 각각 50명씩의 시 468편이 들어있는 의미있는 시집이다.

오랫만에 시집을 들고 중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때 읽거나 외우거나 노랫말 가사로 만났던

그 느낌으로 되돌아갔다.

서정적이며 삶을 한번씩 돌아보는 느낌을 주던 '강은교' '안도현'시인의 시들....

우리가 속한 자연과 그 안에 있는 이들의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전해주던 '김용택'시인의 시들

70,80년대 열악했던 노동환경과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민주화의 꿈을 담았던 박노해, 도종환,김정환,황지우 시인 등등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허탈함같은 최영미 시인의 시, 등등 ,,,

그런데 일본시는 읽기에 좀 어려웠다. 아무래도 외국詩라는게 외국어로 되있는 것이다보니

번역을 해야되고 그러나 보니 의미전달이나 詩가 가지고 있는 감성,단어의 미묘한 감정, 숨은 뜻

이런게 쉽게 다가오거나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얼렁뚱땅 읽게될 수 밖에 없었는데,,, 그중 맘에 드는 시 한편 옮겨본다.

'不死에 대하여'

--고다마 키츠에이

가장 새로운 것은 가장 낡은 것이었다.

우리들 인간은 모든 살아있는 것보다도 먼저 태어나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지루해 하고 있다.

---(중간 생략)

오랜 옛날의 우리들 선조가

불사의 약을 마셔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죽지 않는다.

죽어 다시 태어나지만

정말로는 죽지 않는다.

한국시 중에서는 중학교땐가, 고등학교땐가 늘 가슴속에 담겨있던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 를 이 책에서 다시 만나 너무 좋아서 몇번을 음미했다.

사평역에서

-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마치 영화의 한장면 또는 내 삶의 한장면을 정지시켜놓고 보는 느낌이 든다.

이제는 없지만 어렸을적 조그만 역사에서 보았던 톱밥난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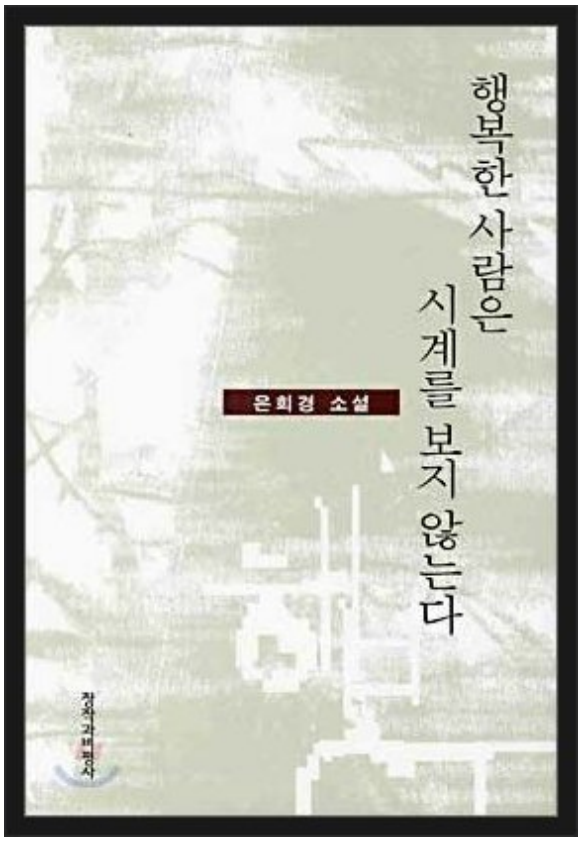
역사주변에 눈이 수북히 쌓여가던 풍경들,,

그리고 각각의 사연을 담고 막차를 기다리며 난로주변에서 몸을 녹이고

톱밥을 던지면 불빛이 올라오던 그 장면이``````

●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 은희경

2011.09.28 07:16



제　목 :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지은이 : 은희경
출판사 : 창작과 비평사 (2006.3.25)
읽은날 : 2011.9.26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빌려본 12번째 책이다.

저번에 은희경님의 책 '새의 선물' 을 너무 재미있게 읽고나서 그의 다른 책을 읽게되었다.

이번책은 장편소설이 아니고 단편과 중편소설 여덟개가 묶인 그의 창작집이다.

--
002. 명백히 부도덕한 사랑
003. 멍

004.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005. 서정시대
006. 지구 반대쪽
007. 여름은 길지 않다
008. 인 마이 라이프

그의 책을 읽다보면 '결혼' '가족' 이라는 틀과 일상의 '삶'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할 거리를 준다.

이 소설들을 읽다보면 사랑인란 것은 어떤 것이든 부적절한 관계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같다.

첫번째 제목 '명백히 부도덕한 사랑' 이라는 제목에서 읽히듯이

반어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명백히 부도덕한 사랑,,,,일부러 명백히란 단어를 사용해서

오히려 강한 사랑의 느낌이 전달된다.

'멍'에서는 자기 삶과 사랑에 순응하며 사는 여자의 모습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행복한 사람은~~'에서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다소 통속적인 주제에

한장의 사진속에 담긴 비밀을 하나씩 이야기해가며 사랑하는 두사람이 결국 배다른 남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어떤 행동으로 결과지어지는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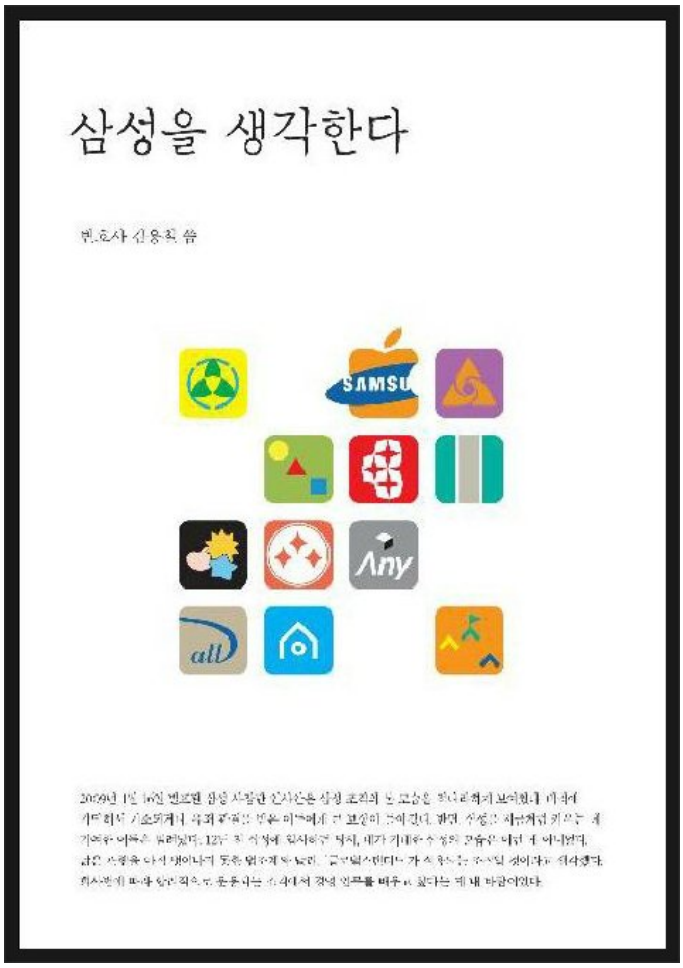
그리고 나는 이 제목이 맘에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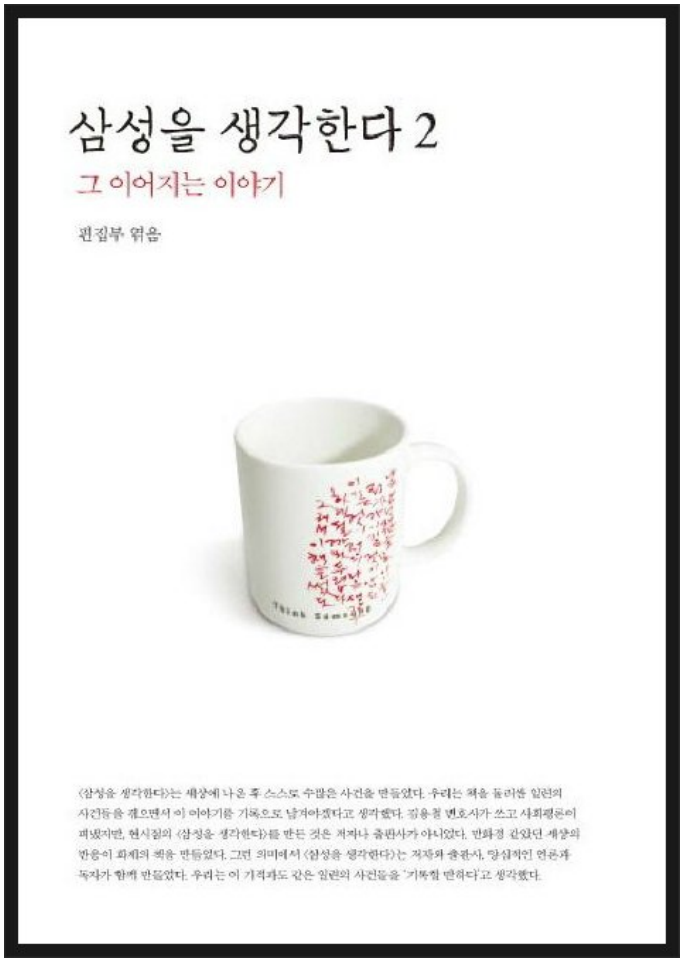
누군가 나에게 시간을 물어보았을 때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해보고 싶다.

날마다 시간을 보면서 쫓기듯 살고 있어서 일까?

● 삼성을 생각한다 1,2 --- 김용철,편집부

2011.09.23 08:26





책이름 : 삼성을 생각한다
저　자 : 김용철, 편집부(2권)
출판사 : (주)사회평론 2010.2.22,, 2권 - 2010 7.12
읽은날 : 2011. 9.20 ~22(도쿄)

도쿄 네리마구립 히가리가오카 도서관에서 빌려본 10번째와 11번째 책.

일본에 있으면서 느낀게 삼성이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더 대단한 회사라는 것이다.

일본 친구들은 삼성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조직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삼성의 제품들, 예를들면 휴대폰(갤럭시 등)등의 성능이 대단하다고들 이야기한다.

그외 외국 친구들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언제 생겼느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그 짧은기간에 그런 놀라운 성장을 하느냐고 대단하다고들 한다.

samsung 을 '삼승'이라고 발음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그게 꼭 '짐승'처럼 느껴졌다.

한국이라는 이미지위에는 삼성이라는 글로벌한 기업의 이미지가 늘 함께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중국 친구는 삼성,현대 대단하다고 앞으로 한국경제 전망은 어떠냐고 다소 전문적인 걸 물어보기도 한다.

우리가 수년전에 소니, 미쯔비시에 대해 가졌던 경외심 같은게 그들에게서 느껴진다고나 할까..

그런 의미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한국인에게 주는 자부심, 자랑스러움, 정말 고맙게 느껴진다.

그리고 도쿄대에서 박사를 마친 한국인들도 꽤나 삼성으로 스카웃되가는 것같다.

실제로 조건이나 명성,이미지,캐리어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도 가장 선호하는 것 같고...

삼성이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더니 틀린 말은 아닌 것같다.

그렇기때문에라도 이 책은 우리가 꼭 읽어봐야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삼성이 고마운 것처럼 나는 이 책을 쓴 김용철 변호사에게도 고맙다.

나같은 평범한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주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집단, 사회, 국가에서도 비판은 필요하다. 그걸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없다면

지속적인 발전,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0년 작년에 처음 이 책이 나왔을 때 서점에 선채로 그냥 다 읽어버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서 차분하게 읽게됬다.

이 책은 어떻게보면 삼성의 내부문제만 고발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의 지배층의 모습(정부,검찰,법조계,기업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데

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이 책이 판타지 픽션이거나 무협지같다고 이야기한다.

소설 내용이 허구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가 황당무계해서 너무 믿기지 않을정도라는 뜻이다.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 뉴스로 접했던 2007년도 즈음의 삼성X파일 사건, 김용철변호사의 양심선언 등을

통해서 대략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책을 읽으면 한국사회의 속살을 낱낱이 들여다보게 되고

요즘 화두인 '정의란 무엇인가'도 생각해보게 된다.

책 마지막 부분에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절절하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그의 진정성을 느끼게한다.

" 많은 사람들이 재벌의 비리를 공개해봤자 소용없다고 이야기 했다. 삼성비리 관련 재판결과가 나오자
이런 목소리에 '역시나'하고 힘이 실렸다.이들은 말한다. '정의가 이기는게 아니라 이기는게 정의'라고.
'질 게 뻔한 싸움에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내 생각은 다르다.정의가 패배했다고 해서 정의가 불의가 되는것도 아니다.
거짓이 이겼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정의가 이긴다'는 말이 늘 성립하는게 아니라고 해서 정의가 패배하도록 방치하는 게 옳은 일이 될 수는 없다.
나는 삼성재판을 본 아이들이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두렵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2권은 출판사 편집부에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과정,

그리고 책이 출간되었을때 어느 매체에서도 광고를 받아주지 않아서 고생했던 과정,

그리고 이 책의 독자 호응과 반향에 대한 기록으로 출간된 책이다.

최대의 광고주인 삼성과의 눈치를 보느라 알아서 기는 모습들,,(자유언론이라 불리는 곳들 마저도)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게 해주는 ~~

그러나 책 홍보, 광고 한번 못하고도 오히려 그것때문에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현상과 과정이 잘 기록되어있다.

그와 관련된 기사, 이 책에 대한 이모저모한 뒷이야기들, 저자 인터뷰 등이 자료집 처럼 묶인 책이다.

옛말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있다.

나도 이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 네가 그래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같은 그런류의 이야기들.

결국 너만 다칠뿐이니까 해봤자 손해다. 아무것도 바꿀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았다.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란 사람,,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쳤다.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화형을 당하던 시대,,

그는 그 바위같은 그들의 믿음과 사람들의 의식에 계란을 던졌다.

외국에만 그런 사람 또 있는게 아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떠오르는 사람은 '김구' 다.

분단이 고착화되가는 과정에 그는 외로이 38선을 넘었다.

각자의 이념과 정치세력화에 집중하던 시절, 그는 하나의 독립된 나라만이 우리의 목표라고.. 분단은 죽음이라고..

분단이 고착되는 바위에 자기 몸을 던졌다.

물론 이상이냐 현실이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진정성과 분단을 막으려는 행동은 평가받아야한다.

....하여튼 나는 여러경우를 책에서도 보고, 또 가끔 살면서도 느낀다.

계란으로 바위치는게 얼마나 무모한지, 하지만 왜 그런게 필요한지도~~

참 이상한게 내가 어렸을때 위인전같은거 읽으면 그런사람들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현실에서는 그러지 말라고들 가르친다.

그렇다면 둘중 하나는 잘못된 것일거라고 어린나이에도 의아해 했다.

내가 책을 잘못 읽었던지, 우리 현실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힘들었는지를

역력히 보여주기에 그러던지,

하여튼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친 사람의 이야기이다.

실제로 이와 비슷해던 일들 묻혀버리기도 하고, 알려지지도 않고 사라져간 것들도 무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세상 살다보면 자연 터득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같은 사람들은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나한테 불리할때 목소리 높이기도 하지만 불편한 진실에 눈감을 때도 많다.

하지만 그 계란 던지는 행위가 옳았다면 사람들은 그 사실에 주목하고 알게될거란 믿음은 있다.

오늘은 그냥 계란을 후라이팬에 던져 반숙이나 해먹을까 보다...

● 살고싶은 여자와 하고싶은 일 --- 한수산

2011.09.20 16:36



책제목 : 살고싶은 여자와 하고싶은 일
출판사 : 나남출판(1994.2.5발행 1994.10.5 4쇄)
지은이 : 한수산
읽은날 : 2011.9.18~20 일본 도쿄에서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빌려본 9번째 책.

제목이 '살고싶은 여자와 하고싶은 일' 이라고 되있어

'살고싶은 여자와(하고) 하고싶은 일' 이라고 읽으면 야한 제목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저자의 뜻은 '살고싶은 여자, 그리고 하고싶은 일' 그 두 문구를 가지고 가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 살고싶은 여자와 못 살아도 좋다는 건 상대적인 가치일 뿐이다.**
그리고 그 가치의 잣대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건 절대적 가치이다.**
그것은 비교라는 저울질이 될 수 없고 얼마짜리라는 값이 매겨질 수도 없다.
*** 또 한 해가 시작된다. 어디에 그 끝이 있고 어디에 그 시작이 있는 것인가.**

시간은 다만 이렇게 있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일 뿐이다.

좀 오래된 책이다. 1994년도에 나온 책이니,

내용도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 작가가 일본, 중국, 인도 등지를 떠돌며

겪은 이야기와 느낌의 에세이 집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2011년의 일본모습과 20여년전 작가의 눈에 비쳤던

일본의 모습을 비교해보는 맛도 있고,

그가 타지에서 느낀 감정, 역사의식, 역사적 사실의 기록과

그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과 감성을 잘 표현해 놓아

오래된 책이지만 새로운 것들을 배운 느낌이다.

저자가 18세때 읽었던 다자이 오사무의 〈사양〉이라는 책을 통해

얻었던 감동때문에 다시 그의 묘지를 찾는 장면과

오노 가즈오라는 87세 노인의 부토(춤) 무대를 도쿄 이케부쿠로 지하극장에서 만나는 장면,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도시 나가사키에서 천황제 폐지와 전쟁반대를 요구하며 40여년을 살아온

그리고 지금은 그 당시 조선인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오카 마사하루 목사의

삶을 보여주는 장면 등등...

책 제목처럼 '하고싶은 일' 이란 절대적 가치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

나는 과연 하고싶은 일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것을 하고있나 생각해보게 된다.

오래된 에세이에서 지금의 나의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

● 새의선물 --- 은희경

2011.09.17 12:31



책제목 : 새의 선물

지은이 : 은희경

출판사 : 문학동네(1판1쇄1995년,,2판2쇄 2011.1.15)

읽은날 : 2011.9.16 (집옆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8번째 빌려본 책)

"그때 1969년 겨울, 나는 조그만 앉은뱅이 책상앞에서 '절대 믿어서는 안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목록을 지우고 있었다.

동정심,선과악,불변,오직 하나뿐이라는 말,약속.....(생략)..

나는 삶을 너무 빨리 완성했다. '절대 믿어서는 안되는 것들'이라는 목록을 다 지워버린 그때, 열 두살 이후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

"삶도 그런 것이다. 어이없고 하찮은 우연이 삶을 이끌어간다. 그러니 뜻을 캐내려고 애쓰지 마라.삶은 농담인것이다."

위의 두문장은 각각 소설의 첫부분과 끝부분 즈음에 나오는 문구다. 결국 이 소설의 주제는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냥 단순히 삶은 어떠어떠하다가 아니라 1960년대 말기의 시골 한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나 할까~~

위의 문장에서 보이듯이 삶이란 건 절대적인 것, 거창한 것, 사람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게 아니란 걸

소설은 이야기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이 책이 너무 재미있었다. 최근에 읽은 책중 가장 내 입맛에도 맞았고

책 읽는 내내 소설읽기의 행복감을 만끽하게 해주었다. (오늘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책을 손에서 놓을수 있었다)

프롤로그는 '열두살 이후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해서

에필로그는 '상처를 덮는 일로 삶이 이어진다.'라는 소제목으로 소설을 끝맺는다.

진희라는 초등학교 5학년 어린소년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사람들의 일상,

그 일상속에 묻어나는 삶의 가치,허위, 이면의 진실같은 것이 너무 잘 묘사되어 있다.

뭐랄까..심리묘사가 탁월하다고 해야되나,, 아님 자연스럽게 읽는 내가 동화되어 간다고 해야하나..

나의 어릴적 70년대 풍경과도 유사하고, 책 읽는내내 재미있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삶의 진실, 가치와도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꼈다.

소설속 주인공들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도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데 ,

정신병을 앓고 자살한 어머니때문에 할머니 밑에 사는 소설속의 화자인 '나' ,

속없고 철없는 20세의 이모와 그의 친구 경자, 서울에서 대학다니는 삼촌, 삼촌의 친구 허석, 그리고 할머니,

수다많고 욕심많은 장군이 엄마, 뉴스타일미용실의 미스 리,난봉꾼 남편과 착한 광진테라 아줌마,

빨치산 남편이 감옥에 있는 정아줌마, 이 선생님과 최 선생님 등 등...

모두 그들 삶속에서 나름대로의 비밀을 안고 살고 있고, 아픔을 안고 살고 있는데

그 아픔이 성장을 통해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어지고 연결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물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을 한 소녀의 눈을 통해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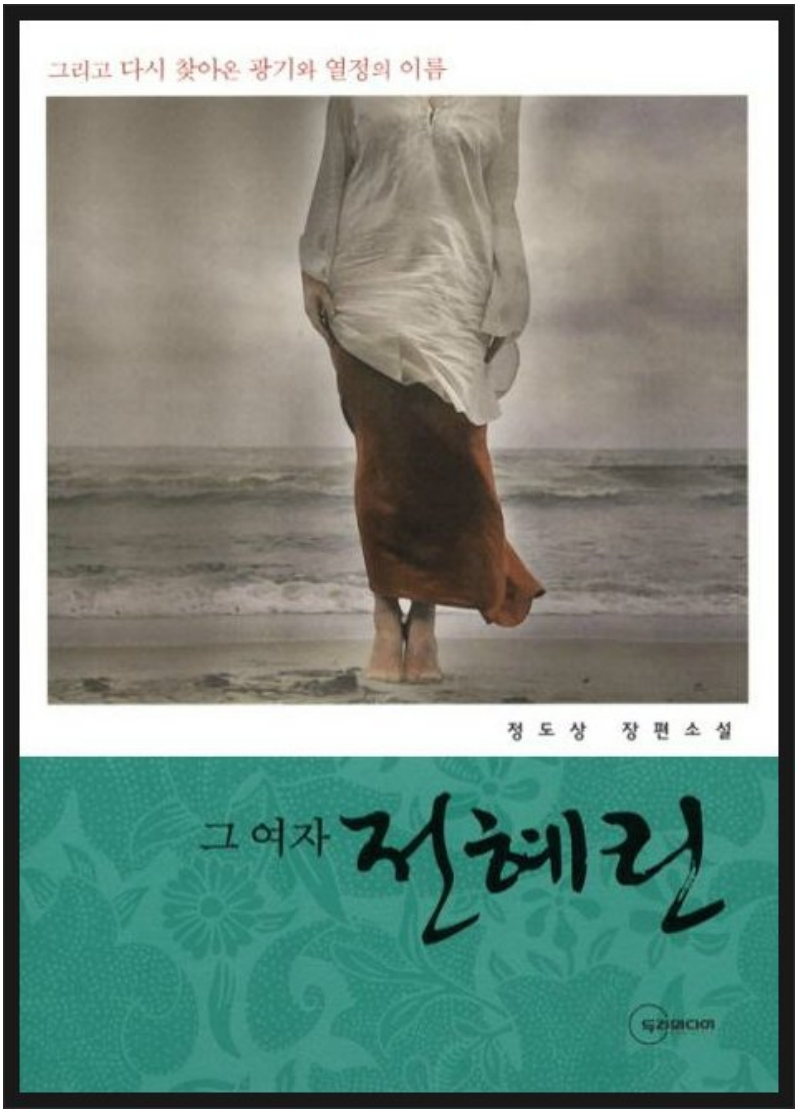
...앞으로 은희경 작가님의 책을 많이 찾아보게 될 것 같다. 이 책이 가장 대표작인것 같은데

그동안 이름만 알았지 굳이 찾아서 읽지는 않았더랬는데

앞으로 그의 소설이 나를 더 풍부하게 해줄것 같은 느낌~~

● 그여자 전혜린 --- 정도상

2011.09.16 00:10



책제목 : 그여자 전혜린

지은이 : 정도상

출판사 : 두리미디어(개정판1쇄2010.9.10발행)

읽은날 : 2011.9. 10일경 히카리가오카 도서관

우리집 앞 네리마구립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빌려본 7번째 책..

우선 부제가 흥미롭다.."다시 찾아온 광기와 열정의 이름".. 이게 뜻하는게 바로 전.혜.린 이라는 이름의 세글자이다.

이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엮은 픽션과 논픽션이 섞인 그런 책이라는 느낌이 든다.

전혜린 이라는 이름은 뛰어난 재능이 시대에 꽃피지 못한 이름으로 기억되기도 하고,

60년대 한국 사회의 전근대적인 모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유학시절 유럽의 문화에 젖어 낭만과 이국적인 문화의

동경같은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도 하는 상징성을 같는다고 해야될까? 하여튼 나에게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 책은 80년대엔가,90년대엔가 출판되었다가 다시 이번에 출판사 요청으로 다시 재출간했다고

작가가 서두에 써놓았던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이유가 조금은 궁금했다.

다시 전혜린이라는 이름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걸까?

요절로 인해 짧은 삶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남겨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절의 어떤 추억 또는 상처와도 같은 것으로 남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젊은시절의 시련,방황 코드는 언제나 먹히기 때문일까?

하여튼 나의 억측과도 같은 그런 상상이 책을 읽는 내내 머리를 떠나질 않았다.

어쨌든 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책은 책속의 책이라는 형식의 소설이다.

주인공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 그 내용속에 주인공이 쓰는 소설이라는 형식속에

또 하나의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역시 주인공의 이야기인 중첩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실제로도 그녀의 아버지는 친일파 고위 경찰간부 - 해방후에도 한국사회의 이모저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바로 그 아버지와의 갈등이 한축을 이루고 있고,

그녀의 삶, ,,자신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남자,애정,문학 속에서 갈등하는게 또하나의 축을 이루고있다.

전형적인 나약한 지식인의 삶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비운의 천재의 모습으로 비춰지는건

어쩌면 그 시대의 한계일지도, 아니면 그녀가 가지는 한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족적이 짧은기간 강렬히 남아있기에 많은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설속에서는 그녀가 실제로 쓴 수필과 번역문을 통해 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많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나같은 독자에게도 좀 더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뭐랄까,, 좀 낯선 풍경,,,독일의 문학, 유럽의 음악,,그 지역의 풍경,,,이런 것들

그리고 20세기 버젼같은 유럽에 대한 동경같은 코드가 그녀의 중심일수 밖에 없다는것...

그녀의 뜨거운 가슴. 또는 열정, 광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두웠던 시절 유학생활을 통해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사회와 세상에 대한 열린 생각을 배운 사람이었고,

(그녀는 한국여자 최초의 독일 유학생, 그 앞뒤로도 최초의 여자 000..이 많이 붙을수 밖에 없다)

또는 부르조아적인 낭만과 유럽의 자유로운 풍경을 맛본 사람일 수밖에 없기에,,

그것에 대한 그리움과 60년대 한국사회의 참담한 현실속에서

쉬 적응하기는 어려웠을것이고 그녀안에 있던 그 재능과 열망을 감당하지 몸해

광기와 열정의 다른 이름으로 또 다시 소설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보다... 이 시대에도..

---- 이건 전혜린이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기 보다 이 소설을 읽고난 나의 생각이다.----

● 김현구교수의 일본이야기

2011.09.09 22:45



책제목 : 김현구 교수의 일본이야기
출판사 : 창작과 비평 (1996.3)
지은이 : 김현구
읽은날 : 2011.9.9 (네리마구립 도서관-히카리가오카)

집앞 도서관에서 여섯번째로 읽은 책이다.(히카리가오카 도서관)

여기 일본에 있는 구립도서관에 한국어로 된 일본에 대한 이해, 비평관련 책이 4권정도 보이는데

저번에 읽은 '일본은 없다' 같은 감정에 치울칠 정도의 혐일, 반일 감정을 일으킬만한 서적도 비치해놓고,

나름 객관적 시선이 엿보이는 이 책도 있고, 나름 도서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는 한쪽의 시선만 고집하는 책만 사놓고 볼 수 있게 하는건 아니라는 느낌이다.

사실, 내가 아는 일본관련 서적은 저번에 다시 읽은 '일본은 없다.' 그리고 그에 반발해 나온 '일본은 있다'

그 분위기에 편승해 나온 '일본은 일본이다'...

하여튼 에로 비디오 호떡부인 시리즈도 아니고 제목만으로도 책내용 거의를 알만한 그런 시리즈인데,

좀 극단에 치우친 경향이 있는 90년대 시리즈 였더랬고,

일본인과 일본에 대해서 3자의 눈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는

오래전에 이어령 교수가 써서 인기를 끌었던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기억난다.

이번에 읽은 이 책은 일본역사를 와세다에서 전공한 교수가 쓴 책이라 일본문화와 일본인의 특성에 대해

역사적인 배경 등이 좀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면 일본인의 yes는 no라던지, 혼네와 타데마에(본심과 겉표현) 가 다른 이유 등등이

역사적으로 섬국가인 일본이 2차대전 이전까지 한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던 역사와

전국시대 100여개의 소국으로 나뉘어 싸우던 시절에 살아남아야 했던 집단과 사람들의 역사 등을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을 하면서

올바른 역사는 단순히 우리민족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역사를 취사선택해서 가르치지 말고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이 되야한다는 주장도 서슴치 않는다.

나역시 남의 잘못된 역사교육이나 사관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동감한다. 그리고 물론 그의 의견중에는 나의 생각과 다른 차이점도 조금씩 보인다.

다만 이책에서 아쉽다면 아쉬운 점은 대중들이 읽도록 쉽게 쓰여있다보니

좀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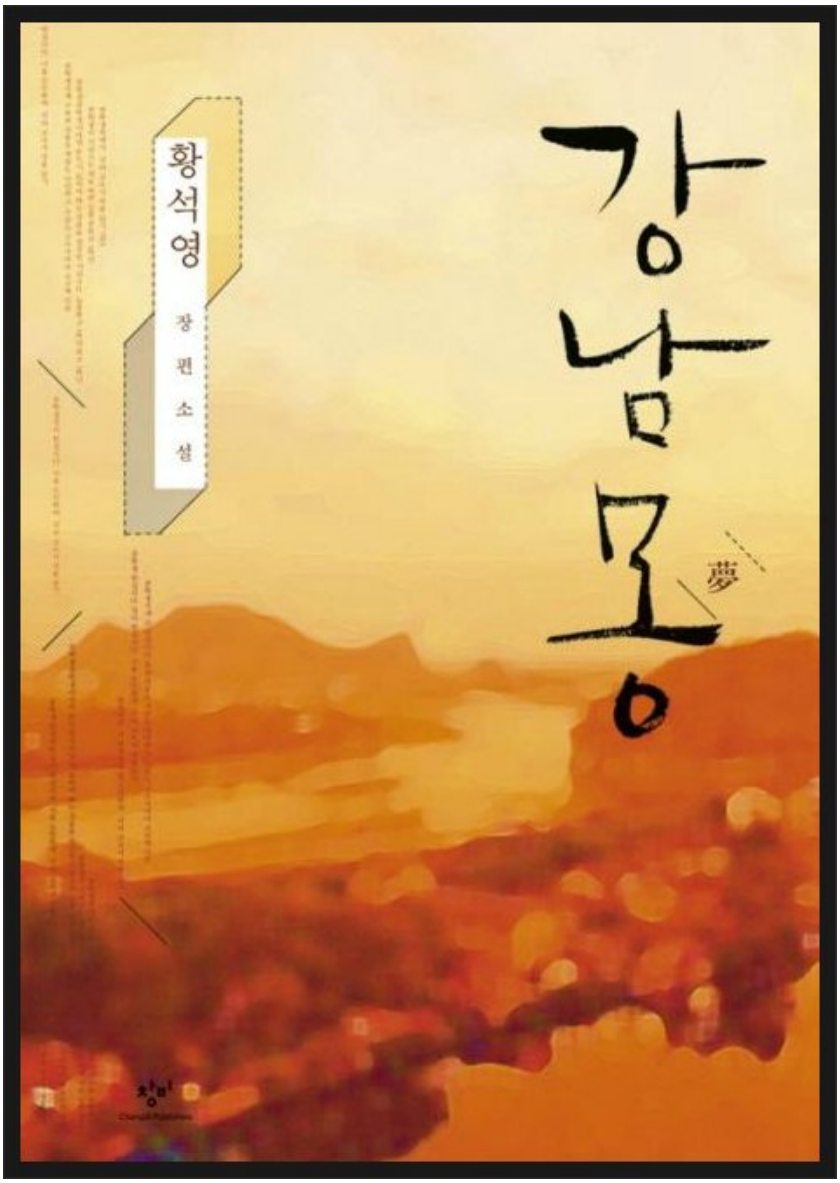
어쨌든 책은 다른 관점의 책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나의 생각, 가치관, 사고가 더 열리고 종합적인 것들을 통찰해 볼 수 있는 시각이 조금이나마

생긴다고나 할까....

● 강남몽 ---- 황석영

2011.09.08 03:13



책이름 : 강남몽

지은이 : 황석영

출판사 : (주)창비 초판1쇄2010.6.25 ,,초판16쇄 2010. 9.25 이걸로 읽다)

읽은날 : 2011. 9.6~9.7 (네리마구립 히카리가오카 도서관)

도쿄 네리마구립 도서관(히카리가오카)에서 다섯번째로 읽게 된 책이다.

최근 출간된 책인데 일본 도서관에 구비되있는게 신기했다.

황석영씨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 책을 읽을수 있다는게 너무 좋아서

첫 페이지 시작해서 끝날때까지 거의 손을 떼지 않고 한번에 다 읽었다.

몽자(夢字) 소설류인 [구운몽] [옥루몽] ..그리고 중국의 [홍루몽] 까지 여러편이 있는데,

저자는 이 책 [강남몽]도 이 세계가 한낱 꿈과 같다는, 덧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목을 정했다고 한다.

이 책의 배경은 한국 자본주의 역사를 대표하는 장소,, 바로 강남되겠다.

읽고나니 강남의 형성사, 상류층이라 불리는 그들의 역사를 짧고 굵게 단면으로 보여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료 시민 참여의식에 더불어 애들 밥값은 꼭 내겠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보여주신 강남의 모습이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되는 면도 있지만서도,

잘 알다시피 사람은 자기 위치, 자기가 처한 환경, 지위 등이 그 사람의 의식이나 생활양식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그럴수 밖에 없으리란 생각과 더불어 궁금하기도 했다. 그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그 위치와 지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데 이 책이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역사와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부의 형성과정, 토대와 기반을

칼로 두부를 썰어 한 단면을 보여주듯이 잘 묘사해주고 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부분만 잘라낸 단면이지만서도~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역사, 그 속에는 고속성장과 더불어 생성된 오점의 역사와

개발시대의 욕망과 치부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 배경이 되는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실제 인물과 또는 비슷한 인간군상을 통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빠르게 전개시켜나가 쉬지 않고 읽게 만들었다.

책속에 기억나는 인물로는 일제때 일본 첩자 또는 만주군에서 친일 활동하던 인물들이 해방후

발빠르게 변신해 한국정부나 군, 정보기관 에서 중요역할을 하면서, 또는 사업가로 변신하여

강남의 개발정보를 통해 부를 축적하던 인물들, 부동산 업자들.강남의 술집에서 성장해 부를 축적한 마담, 조직폭력배들,

실명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이름만 살짝 바꿔 등장한 실제인물도 있고 가상인물도 있다.

박정희, 이후락, 장영자, 이철희 등등의 인물과 그리고 대표적 사건 삼풍붕괴사고, 강남개발계획 등등이 나온다.

책 한권에 담기는 내용이 많았는지 전개가 너무 빠르고 굵지굵직한 사건위주로 쓰여있다보니

세세한 면이 부족하고 주인공의 캐릭터의 입체감이랄가 뭐 그런게 좀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이런 면이 오히려 이 책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든다.

어짜피 우리가 모든 세세한 것들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분석하는 논문집이 아니라면

소설이라는 매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통해 그 시대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으니까~~

요즘 강남 공화국, 강남 신화, 강남 불패 등에 연상되는 부와 권력의 상징에 이어

강남좌파라는 말까지 만들어 질 정도로

강남은 화두의 중심에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모든것의 중심에 있다고 해야 맞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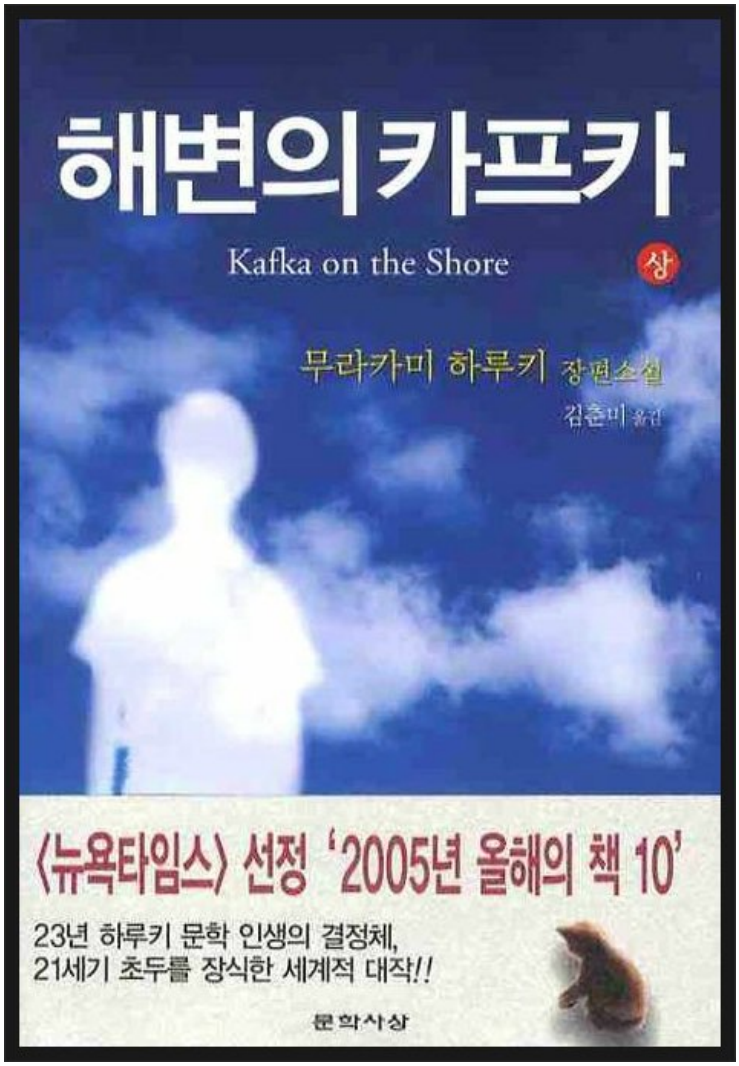
하여튼 어떤 시대에는 지역균형발전이 화두였던 시대로 있더랬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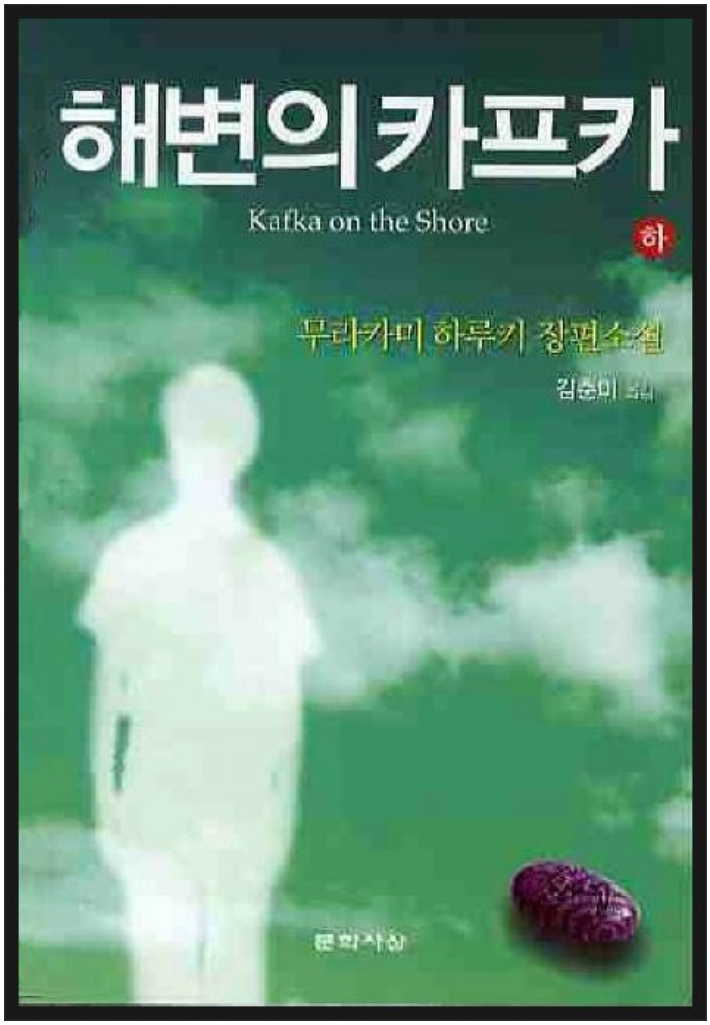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만 해볼뿐이다.

[강남 몽] 제목과 같이 그것이 한낱 꿈인지, 욕망의 실현과 부의 축척을 꿈으로 여기는 시대에

거기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 바라보는 신기루같은 꿈인건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 해변의 카프카(海邊のカフカ) 상, 하---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2011.09.06 12:43





책이름 : 해변의 카프카 (海邊のカフカ -Kafka on the shore) - 상,하 2권
저　자 :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むらかみ はるき) 역자-김춘미
출판사 : 문학사상 2003.7.25 초판1쇄 (2008.2.22 초판 48쇄 책으로 읽다)
읽은날 : 2011. 9.4~9.5 (도쿄 히카리가오카 도서관)

우리집 근처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세번째와 네번째로 읽은책,, [해변의 카프카]1.2권

장편에서도 두권으로 나뉠정도이다 보니 분량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몰입되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15살 소년이 주인공인 소설인데 두 가지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각장마다 따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형식을 띄고있다.

하루키 소설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현실속에 존재하지만 꿈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또 다른 세상, 자아를 이뤄나가는 이런것들이 함께 나온다.

1인칭 관점으로 자신의 이야기처럼 풀어놓았는데 작가의 후기를 보니 이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써놓았다. 그는 많은 변화가 있는 15세 소년을 주제로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다고 한다.

읽다보니 시제가 현재 시점으로 쓰여진게 특이했다.

예를들면, 00가 00를 한다. ('했다'가 아니라 한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간다..... 등등

1인칭 현재시점으로 쓰여있다보니 나 자신이 현재 그 속에 있다는 느낌과 몰입이 쉽고

소설 속에 쉽게 동화될 수 있기도 하지만 책을 읽기에 좀 낯설기도 했다.

즉 나와 주인공을 일체화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문법상으로는 좀 어색하다랄까,,,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 그리고 '1Q84' 에서 보았던 그런 소재들도 자주 등장한다.

패션, 음식, 성적 관계, 그리고 특히 음악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의 음악) 에 대한 섬세하고 서정적인 표현이

소설 읽는 재미를 부가시켜주는 면이 있다.

게다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오이디푸스의 저주' 가 중요한 테마로 작용하고 있고,

그외에도 프로이드의 '꿈의해석'과 같은 무의식을 표현하기도 하고

일본 전통의 신령, 수많은 문학작품속 구절 구절들이 소설속에 등장하면서

지적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어주기도 했다.

두서없이 쓰다보니 나도 무슨 이야기를 감상으로 적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하루키의 이 소설 '해변의 카프카'는 확실히 재미있다.

그런데 상징성과 은유가 굉장히 강하다. 소설속 주인공, 소재, 이야기 이런것들이

쉽게 의미를 드러내지 않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그는 소설속에서 '메타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저자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하다.

일본의 군국주의 시절의 모습들, 그리고 그가 겪었던 60년대 말 계급투쟁의 속좁은 운동방식,

현재의 상상력이 결여된 인간들에 대한 메타포(은유,비유?)가 소설속에서 읽혀졌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리고 성장하면서 알게되는 또는 알수 없는 것들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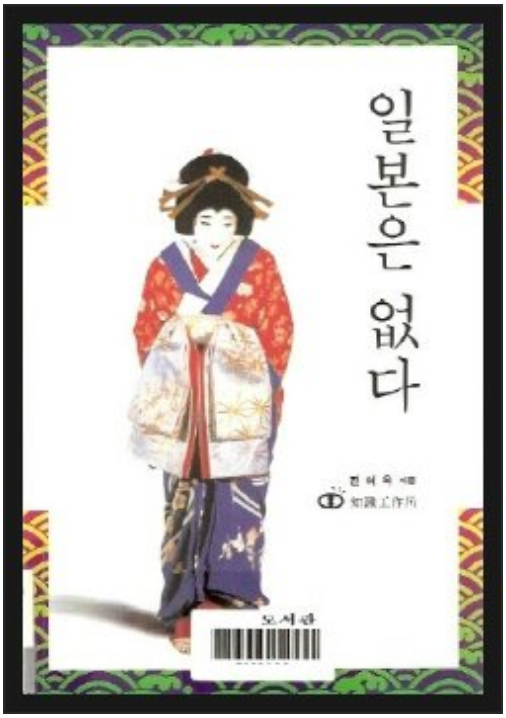
많은 메타포를 전시해준 느낌이랄까,,,,,,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상'편은 퍼즐을 맞춰나가는 또는 추리소설 같은 느낌으로 읽었고

'하'권은 이 소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건가를 생각하면서 읽을 수 밖에 없었다.

● 일본은 없다

2011.09.06 08:50



책이름 : 일본은 없다
지은이 : 전여옥 (?)
출판사 : 지식공작소 1993년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일본 네리마구 히카리가오카 도서관에서 빌려본 두번째 책, [일본은 없다]..

아마 1990년대 후반즈음에 처음 이 책을 읽었던 것 같다.

공전에 히트를 쳤던 베스트셀러였더랬다. 백만부쯤 팔렸다나~

우리는 [일본은 없다], [일본은 있다] 이런 책 제목에서 보듯이 일본을 볼때

극단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즉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이런것에 편승해서 나온 책들이 아닌가도 싶다.

어쨌든 여기 도서관에 있길래 다시 한번 읽게되었다. 최근 표절시비에 재판까지 있던 책이고,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픈 맘도 있고해서,,

우선 이 책 저자는 전여옥으로 되있지만 작년초인가 재판에 항소1,2심까지 해서 표절이 확정된 듯하다.

결국 전여옥이 패소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맨 아래 링크를 참고...

어디까지가 저자가 쓴건지, 얼마만큼이 베껴쓴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표절당했다는 쪽에서는 절반이상이 초벌원고 그대로 가져다 쓴거라고 주장한다.

그분 주장을 읽어보니 그랬다는 증거도 충분해 보인다.

어쨌든 이 책을 다시 읽고 난 소감은 주관성이 너무 두드러 진다는 것이다.

책내용 전부가 일본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차 있는데, 관점이 객관성을 유지한다기 보다는

주관성과 작가의 주장, 즉 의식의 과잉으로 인해 이 책내용에 동의 하기가 어렵다.

일본을 제대로 보자는 것은 좋은데, 꼬투리 잡기에 의도적인 비난에 가까운 글들이 많다.

그래서 혐일을 부추키는 면이 많은데, 어느부분은 맞는 이야기도 꽤있다.

다만 어떤 사실, 현상을 접할때 어떻게 바라보느냐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에서는 균형잡인 시각이라던지, 객관적인 분석 이런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단지 쓴사람의 의견, 주장만이 넘쳐난다.

우리가 혐한을 부추키는 책을 볼때 의도성을 의심하는 것처럼 이 책도 저자의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안좋은 면을 강하게 부각시킨다.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면이 너무 많았다.

"도쿄 시내에 나가면 전부 루이비통 핸드백만 들고 다니고 일률적인 패션이라든지,,,"

그런면만 이야기한다면 '00 은 없다' 는 어느나라도 다 해당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책에 이런 면만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될 수 밖에 없을것이다.

표절당했다는 유재순 씨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읽어보니

"자신이 쓰고 싶었던 책은 일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 '일본은 없다' 라는 제목처럼 극단적으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서 왜곡하고 각색해서 반일, 혐일 감정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

즉 전여옥이 책 내용을 계획적으로 도용해 자기 입맛에 맞게 선동적으로 각색해서

일본은 없다를 만들어버렸다고 한다."

어느나라나 문화가 있고 관습이 있고 특유의 성격이 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것을 제대로 보는 눈,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가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 참고 -- 표절에 관한 전문
http://jpnews.kr/sub_read.html?uid=3293§ion=sc2§ion2=유재순

그래도 9월이다~~~

2011.09.04 08:17

그래도 9월이다　　/ 강산에

너와 나의 하늘 그 누가 몰고 왔나
온통 먹구름으로 가렸네
그래도 9월이다.
너와 나의 사랑 먹구름일지라도
그래도 9월이다.

너와 나의 하늘 갑자기 억수같이
굵은 장대비 들이 퍼붓네
그래도 9월이다.
너와 나의 사랑 장대비일지라도
그래도 9월이다.

매일 똑같지 않기를 바라는 그 시간들이
내 어깨 기대고서 살며시
잠이 든 널 보고 질투하나봐
내 사랑 단 하나
너와 나의 저 하늘 그래도 9월이다.

너와 나의 하늘 검은 커튼 드리워
하얀 별빛들 너무 아련해
그래도 9월이다.
너와 나의 사랑 별빛이 아련한 밤
그래도 9월이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이 노래를 꼭 찾아 듣는다. (강산에 3집앨범 - 삐다기 수록)

나는 이 노래가 늘 시(詩)처럼 들린다.

지금 9월에 도쿄에서 먹구름 가득 낀 하늘을 보니 더욱 그렇다.

어느 노래가 시 아닌 노래가 있겠냐만은, 이 노래가 담고 있는 상징성을 보면

이 노래는 그냥 9월과 사랑만을 노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든다.

9월,,여름의 끝자락이면서 가을이 시작되는 변화의 시간,

변화를 상징하듯 먹구름도 많이 끼고 태풍도 몰려오고 한바탕 비도 쏟아지는 9월,

여기서 그 9월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아닐까?

세상의 모든것, 계절도 사람도 사랑도 모두 변한다는 것,

9월은 바로 그 변화하는 기간의 상징이다.

이 가사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재미있는 대목이 있다.

매일 똑같지 않기를 바라는 그 시간들이
내 어깨 기대고서 살며시
잠이 든 널 보고 질투하나봐

여기서 '주어' 즉 주체는 '시간들' 이다.

바로 변화하는 시간들(똑같지 않기를 바라는)이 질투를 하는거다.

누구를, 무엇을??

'내 어깨 기대고서 살며시 잠이 든 널' 질투한다.

그건 바로 변화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어깨 기대고 잠든 너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란 것은

이 순간이 변화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것은 변화하는 순리 앞에서 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마음,

변하길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9월은 곡식이 익어 풍성한 들판의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추수가 끝난 후의 텅빈 들판이 되는 허허로운 이미지가 함께 겹치는

변증법적 시공간이기도 하다.

어쨌든 그래도 9월이다.

무더웠던 여름은 가고있고 또다른 계절이 찾아오고 있다.

변화를 맞이해야 할 시간이다. 9월,,,,


日大病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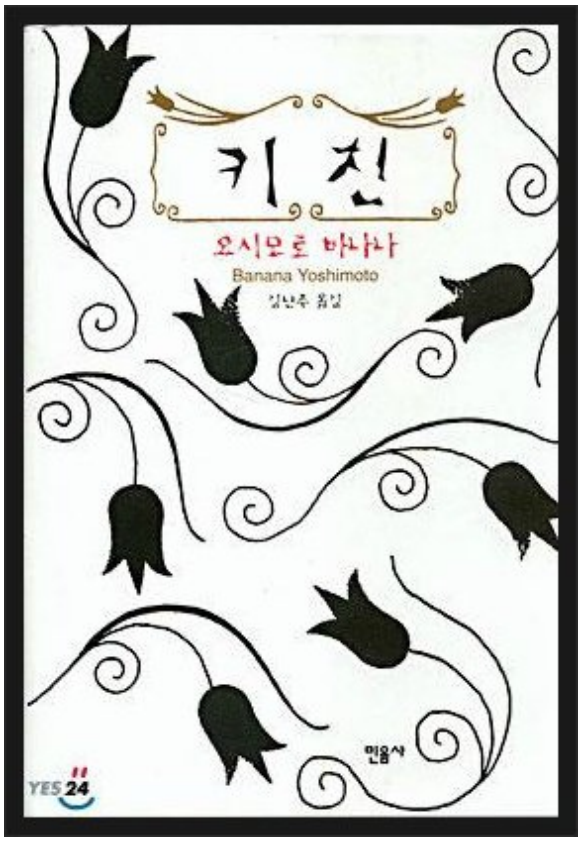


히카리가오카 공원 입구 9월 먹구름 낀 어느날~



● 키친(キチン) --- 요시모토 바나나(Banana Yosimoto)

2011.09.02 12:00



책제목 : 키친
지은이 : 요시모토 바나나
출판사 : 민음사 - 역자(김난주) 1판69쇄 2010.2.11
읽은날 : 2011. 9.1 네리마구립 도서관(히카리가오카)

집근처 도서관에 가곤했는데 처음에는 잡지란에 일본잡지 수십종과 함께

월간동아, 주간조선이 있길래 시간날때 한번씩 보곤했었다.

그리고 읽을 책이 없어 한국으로 인터넷 주문을 해야하나 고민하던 찰라, 드디어 발견했다.

도서관 구석 한쪽 코너에 한국어로 된 책이 세어보니 약 170권 가량 꽂여있었다.

주로, 일본에 관한 책들과 일본어 유명소설등의 번역본인데 어쨌든 좋았다. 읽을게 있으니까~~

요즘 방학이라 자주 이 도서관에 오는데 잘 됬다싶어

바로 대출증 만들고 책을 4권 빌리고 또 몇권의 책은 열람실에 앉아 재미나게 읽었다.

그리고 나름 목표를 세웠다. 여기있는 동안 저거 100 여권은 다 읽고 가야지~~하고,,(시간이 되면)

여기 도서관 좋은 점은 한번에 10권까지 빌릴 수 있고, 기간은 3주, 그리고 저녁8시까지 대출,반납가능!!!

게다가 구립 도서관이라 구에 있는 어느 도서관에든 대출과 반납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즉 A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B도서관에 반납해도 된다는 것,,

오늘은 그 처음 빌린 책,,,, '키친'에 대한 감상이다.

한국에서 요즘 유명한 일본 작가는 내 생각에

무라카미 하루키, 시오노 나나미(로마인 이야기), 요시모토 바나나 이 세사람이 아닐까 싶다.

그중 한명인 요시모토 바나나,, 이 필명은 작가가 좋아하는 과일이고 성구별이 없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름이라 '바나나'로 했다고 한다.

이 책은 세 편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키친' '만월' '달빛 그림자' .....

앞의 2편의 연결되는 이야기이고 마지막 '달빛 그림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초기작품들인데 역자의 서평을 읽어보니

요시모토 전 작품을 관통하는 여러가지 주제를 이 책에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일관되게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 작가의 여러 작품을 보면 비슷한 주인공, 기본적 테마, 소설적 구성요소

이런것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걸 느끼듯이 아마 이 책도

요시모토 바나나 문학의 근간, 또는 원형질 같은 그런게 담겨있다는 이야기이리라 생각한다.

이 책을 다 읽고 덮고난 첫 느낌은 여성스럽다는 것이다.

주인공이 다 여자였고 주제도 부엌(키친), 그리고 사랑의 상처를 안고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상처의 해결과정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었을까?

어쨌든 감성적이고 섬세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소설이다.

우리나라 작가로 치면 '신경숙' 같다는 느낌이랄까?

많이 다르지만 문체와 글에서 뭔가 비슷한 향이 느껴진다.

그리고, 소설의 주제의식, 내용으로 치자면 젊은날의 방황, 고민, 사랑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여러 소설과 닮은면이 느껴진다.

젊은날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대표작으로는 한국에서도 잘 읽히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그리고 오래전 내가 학생때 읽었던 강석경의 '숲속의 방'

최근책으로는 신경숙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등등이 떠오르게 한다.

하지만 요시모토 바나나의 이 책은 다른 책과는 확실히 다른 점도 내포하고 있다,

하루키의 책이 '상실' '좌절' '환상' 이런 것들과 맞닿아 있다면

바나나의 책은 '상처의 치유' '슬픔의 승화' '비슷한 상처의 교감과 도움'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게 한다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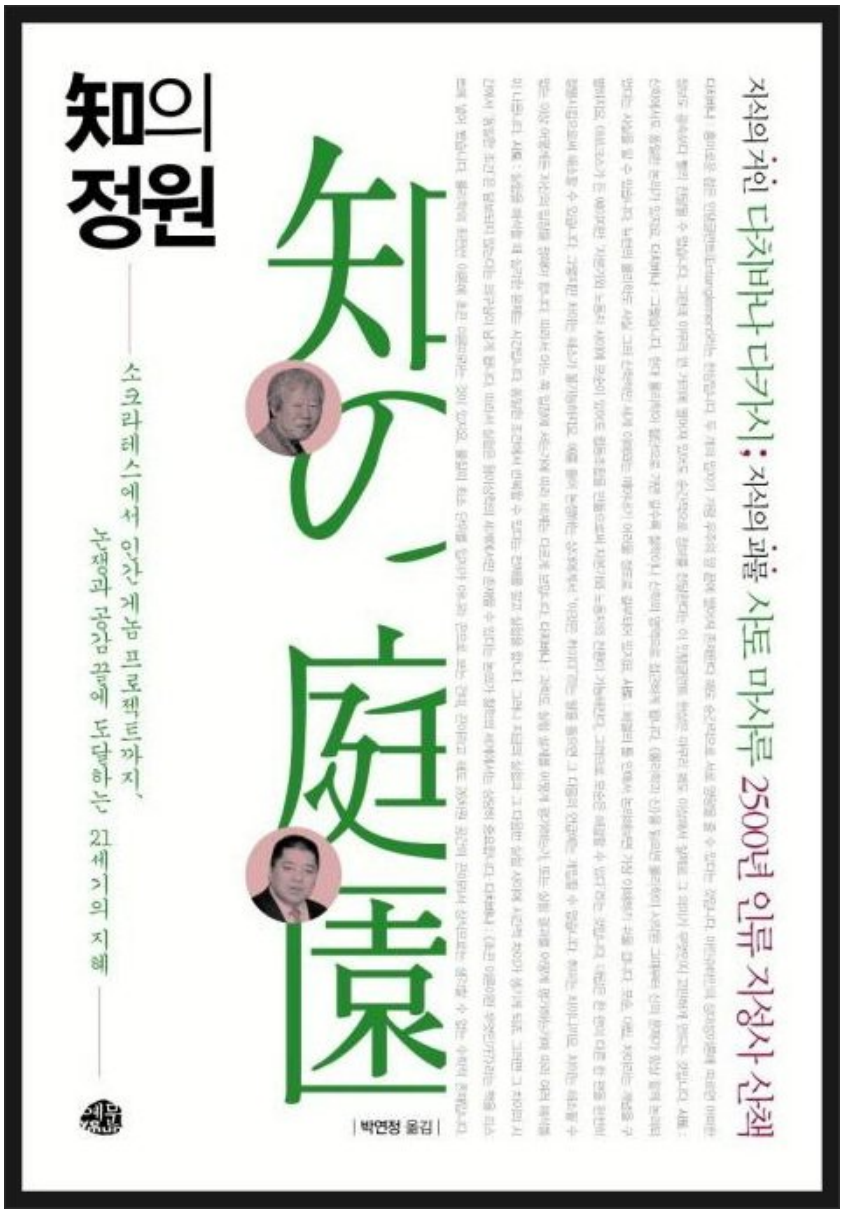
일본 소설을 읽으면 일본 문화를 조금 더 알게되고 이해하게 되는 면이 있다.

우리하고는 뭔가 다르다는 점을 느끼는게 감정의 표현이라던지,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행동, 관습, 문화 이런것들이 자연스럽게 책속에서 나오기 때문인 듯~~

● 지(知)의 정원(庭園) --- 다치바나 다카시,사토 마사루

2011.08.29 18:27



책제목 : 지의 정원 (知の庭園)

지은이 : 다치바나 다카시(たちばな たかし | 立花隆 | 橘隆志 | Tachibana Takashi) ,
사토 마사루 (さとうまさる 佐藤 優)

출판사 : 예문(2010.8.6) 역자 - 박연정

읽은날 : 2010년 말 ~

제목부터 좀 거창하다."지의 정원"이라~ 정원에 나무와 꽃이 핀것이 아니라 지식이 피어있다는건데,

그래서 독자들에게 그 지식의 정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듯하다.

책 좀 읽는다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다치바나 다카시'**,,,,

지식의 거인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읽은 책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유명하게 한 기사, 논평, 책들도 많은데 대표적인것으로는

다나카 수상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일본정치의 금맥과 인맥을 파헤쳐 쓴 기사와

[21세기 지(知)의 도전]' `[나는 이런 책들을 읽어왔다]'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등등의 책이 있다.

특히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에서는 요즘 대학생들이 고전과 인문학,

철학에 대한 책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내가 느낀바도 비슷하다.

물론 여기는 공대라 조금 다르겠지만,,,공학적 능력에 비해 인문적 소양은 생각보다는 적다는 느낌..

예전에 일본은 서양의 모든 글로 되있는 것들,

특히 고전과 책을 다 번역해서 서양을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세웠다는데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일본이 근대화에서도, 지적인 면에서도 급성장을 한 면이 있다는건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번역본을 다시 번역해서 들어온 책들이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적 읽었던

세계문학전집이라던지, 세계동화라던지,,,,그랬더랬는데~~~

어쨌든 일본의 독서율과 독서열은 상당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집근처 도서관에 가면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무엇인가를 읽고 있다. 전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책이 뭐든지 간에 하여튼 읽는 습관은 잘 되있다는 느낌이다.

잡지와 책의 출판율도 세계1위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고전보다는 가벼운 책에 집중하고

취직문제등으로 젊은이들도 전공 공부에만 몰두하기 때문인지 다카시는 그런 문제제기를

제기하는가 보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된 또 한사람의 논객,, **사토 마사루**,,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도 내공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다.

이 책은 두 사람의 대담이기에 일정한 주제가 없다.

주제가 너무 넓어서 무엇이라고 말하기 힘든데 인류역사부터 시작해서

철학, 종교, 우주, 현실 정치 등등 지적 유희를 느끼게 해준다.

물런 나의 무지도 깨닫고,,,

게다가 이 두사람이 추천하는 100권의 책이 소개되어있어 독서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흥미가 당긴다. 그동안 자기에게 부족한 책이 무엇이었는가 생각도 해보고,

이들이 왜 어떤 책을 추천하는지도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주니까,,,

하지만 짧은 분량안에서 많은것들을 이야기하다보니 읽기에는 다소 현학적으로 느껴지는 면도 있고,

하나의 주제에 깊이 들어가서 논쟁하는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편집되 있어 이들의 지식을 다 읽어내기가 쉽지않은 면도 있다는 느낌,,,

아래는 책 목록,,,,,, 목록만으로도 묵직함과 지적 흥미가 느껴진다..

역자 서문 : 아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의 일치

제1장 - 독서가 인류의 뇌를 진화시켰다
'지(知)'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유토피아 사상과 정치적 광기
선문답과 종교, 그리고 신의 존재
《게 공선(蟹工船》 붐에 이의 있다

〈북리스트 1〉 우리의 뇌를 단련하기 위하여
다치바나 다카시, 서재 책장에서 100권을 꺼내다
사토 마사루, 서재 책장에서 100권을 꺼내다

제2장 - 지(知)의 전체상을 파악하자
고전읽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칸트 철학은 현대에 맞지 않는가
허학(虛學)과 실학(實學)의 균형
엘리트 교육과 교양 교육

제3장 - 20세기는 과연 무엇이었나
미국은 어떻게 제국주의가 되었나
커피하우스를 없애버린 스탈린
전쟁을 알아야 시대가 보인다

제4장 - 가짜에 속지 않는 법
푸틴과 유라시아주의
정치는 술주정꾼의 세계
선량한 세계만이 교양은 아니자
왜 사이비 과학에 홀리는가

제5장 - 진정한 교양은 해독제가 된다
마르크스를 해부한다
신좌익은 '자기 찾기'인가
인터넷 시대에 독서는 무엇인가

〈북리스트 2〉 지금, 여기를 살아가기 위하여
사토 마사루, 문고와 신서에서 100권을 꺼내다
다치바나 다카시, 문고와 신서에서 100권을 꺼내다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6 (인생도처유상수) --- 유홍준

2011.08.14 17:27



책 제목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6번째 - 인생도처유상수(人生到處有上手)

지은이 : 유홍준

출판사 : 창비 2011.5.11 초판1쇄 (초판6쇄 2011.5.27 --- 이책으로 읽다)

읽은날 : 2011. 8.7 ~ 8.10 도쿄에서

5권이후 언젠가 다시 책이 나올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5권이후 벌써 10여년이 흘렀다. 다시 본 그의 책 6권(2011 올해 출간)은 역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1990년대에 읽었던 다섯 권의 책은 나같은 문외한에게도 문화유산이라는 세상을 열어주고,

'아는만큼 보인다'. '사랑하면 알게된다' 라는 그런 문구로 관점을 잡아준 정말 고마운 책들이었다.

저자는 이 책부터 드라마로치면 시즌 2인셈이라고 했다.

나는 이번 책 6권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이 꼭 번역되서 내가 지금있는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에 출판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외국에 있다보면 우리의 문화유산을 알려주고싶어도 그러기가 쉽지않은데,,

이런 좋은책을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선물로 준다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

책을 읽다보면 소장해야 될, 아니 소장하고 싶은 그런 책이 있는데 이책이 바로 그런책중 하나이다.

두고두고 오랫동안 보고싶은 책, 언젠가 내가 꼭 다시 열어보게 될 그런 책들 말이다.

이번 책은 경복궁으로부터 시작한다.

--- 경복궁 사진들,,, 이렇게나 아름다운지 정말 책 읽고나서 다시 느꼈다..(Korean palace - Kyungbokg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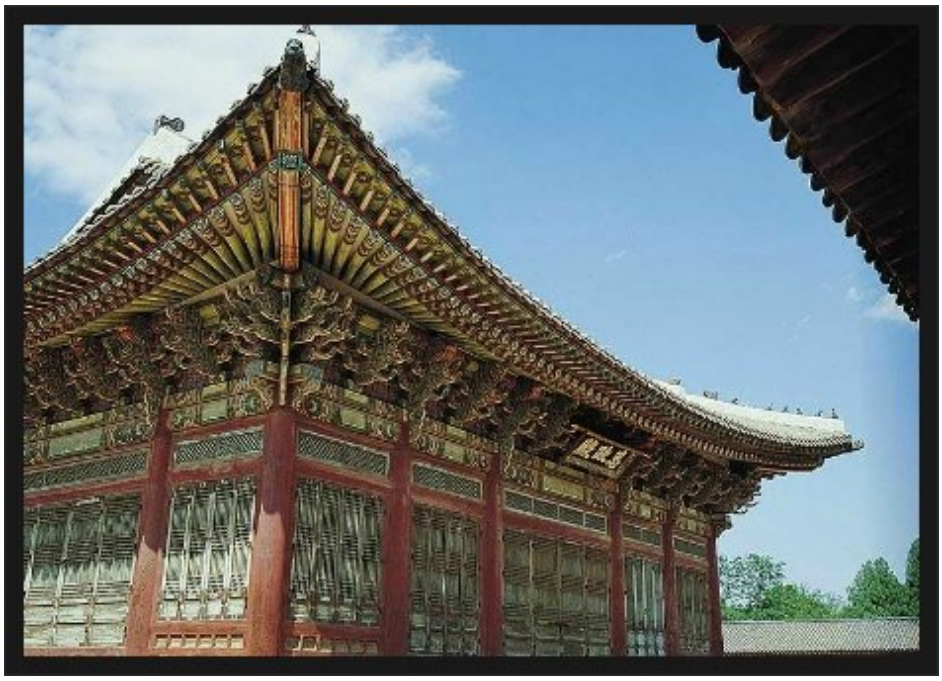




















사실 나는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잘 모른다..아니 몰랐다..아는만큼 보인다고 알아야 뭐가 보이던지 말던지..ㅎㅎㅎ

그런데 이제 조금 보일듯 한다. 알고나서 보면 달라진다고, 그건 처음 볼때하고 다른 눈이 생긴다던데,,

그건 문화유산, 건축뿐만 아니라 사람도 똑같은거 같다.

경복궁 뿐만 아니라 순천 선암사, 달성 도통서원, 거창합천, 부여 논산 보령의 백제 이야기 등

이 책을 들고서 다녀야 할 곳이 몇 곳 더 생겼다는 기쁨이라고나 할까,,,

문화라는 것의 소중함.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굳히 꺼내지 않더라도 갈수록 더욱 소중하게 느낀다.

그걸 어떻게 가꾸고 찾아내고 보존하느냐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아니 소극적으로는 관심이라도 갖는게 중요하다.

남들이 가꾸어놓은 문화와 우리 문화를 비교해보면,사실 그것도 경제력 등과 많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라가 돈이 있으면 문화유산을 찾고 관리하고 꾸미는 면도 있지만,

우리는 유구하고 아름답고 독창적인 문화를 갖고있기에

우리는 별 노력없이도 정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게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랄까~~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슬기롭고 창조로운 문화를 만들어 냈는가를

아는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건 나의 뿌리이기도 하니까,,

● 피안 지날때까지 --- 나쓰메 소세키 (夏目漱石)

2011.07.25 17:12



제　목 : 피안 지날때까지
지은이 :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
출판사 : 예옥 2009.9.10

읽은날 : 2011. 7월 무더운 여름 도쿄에서

나쓰메 소세키는 일본 메이지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한다.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는데, 책 제목이 어디선가 본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냥~~

'피안' (彼岸) 이라는 말은 불교용어로 '사바 세계 저쪽에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뜻하는 말로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도 않고 듣기도 어려운 용어다.

나는 군대에서 이 용어를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는 '반대쪽 언덕'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던 것 같다.

일본에서는 '피안'이라는 용어가 춘분이나 추분을 전후한 일주일을 의미하는데

이 책의 제목에서는 중의적인 뜻을 함께 담고 있는것 처럼 보인다.

'피안'이 철학적인 의미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관념적으로 생각해 낸 현실밖의 세계..

그런데 사람은 현실속에 살고 있다..

현실속에서 알 수 없는 그 외의 세계(저편)을 말한다는게 아이러니하지만

사람은 늘 그런 상상을 안고 살아간다. 특히 종교는 그런 세상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있고,,,

이 책은 일본 특유의 감정이랄까 감성이랄까 그런게 느껴진다.

일본 영화보면 느끼듯이 좀 무미건조하고 격렬한 감정의 기복도 없고,

위기나 절정의 그런 흥미도 많이 없이 잔잔하게 이야기가 전개된다.

특히 이 책은 소세키의 후기3부작의 대표작이라고 적혀있던데,,,,

하여튼 번역이 2009년에 처음 되 출판된 것보면 100년쯤 묵은 이야기임에도

그의 소설속 메세지가 현재에도 유용하다는 이야기인데,

책의 줄거리는 사람들의 대화가 거의 전부이다.

대화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 다른 화자를 통해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태도,

또한 소설적인 큰 장치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한다.

시작과 결론도 없고 모호한데다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뭔가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이다. 하지만 작가는 소설속에서 대화를 통해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같으면서도 남같고, 긴듯하면서도 짧은,,,,그런 이야기라고,,, "

● 김약국의 딸들 ---- 박경리

2011.07.14 16:10



저　자: 박경리

출판사 : 나남 (최초 1962년, 2005년 출간 된 것으로 읽다)

읽은날 : 2011. 7.13 ~14 새벽

박경리 선생님의 오래된 책 '김약국의 딸들' 을 읽게되었다.

여기서는 책구하기가 쉽지 않아 책에 대한 선택권이 없이 구할 수 있는 책이면

아무것이나 소중하게 읽게된다. 덕분에 읽지 못했던 옛날 책들을 읽게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좋은점도 많은듯 하다...

박경리 선생님의 초기 작품인데 드라마로도 여러번 했던 것 같다. 보진 못했지만,,,,

구한말,일제시기의 통영을 배경으로 한 내용인데 재미도 있지만,

한집안의 흥망, 몰락을 비참하게 그리고 있어 읽는내내 슬픈 옛 노래 타령을 들으며 읽는 느낌이었다.

.....

옛 시골의 정취와 구수한 사투리, 생동감 있는 캐릭터들, 박경리 선생의 작품들이 갖는 특징인지라

그속에서 우리 한민족이 살아온 역사를 개인개인, 가족, 가계(가문) 등을 통해 느끼기에 충분하다.

태백산맥, 토지, 혼불 등등,,,, 그 시대를 그린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우리 민족의 고난 속에 지주와 농민들의 관계, 개개인의 척박한 삶,

젊은이들의 새로운 의식 등등 ,,,,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군상이 비슷비슷하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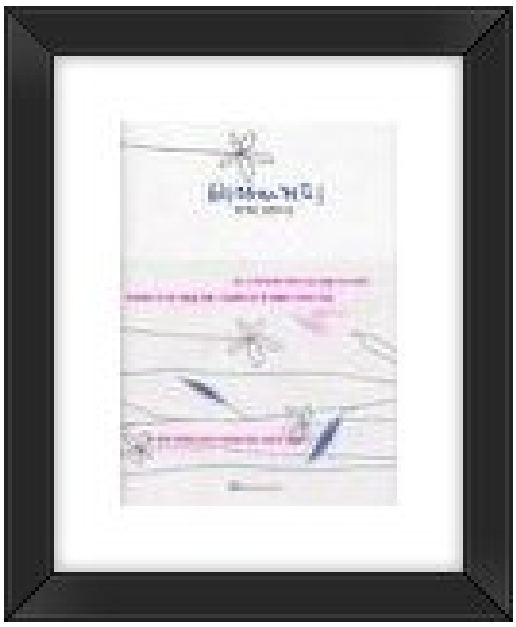
그 시대의 말미에 태어나 그 아픔과 정서를 이해하고 잘 아는 작가들의 공통점이려니 생각도 든다.

역사는 큰 줄기와 사건 등으로 기록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개개인의 삶과 생각, 치열함은

이런 문학속에 살아 남는다는 생각을 해본다.....

● 바다와 커피 --- 원재훈 장편소설

2011.07.11 15:03



책 제목 : 바다와 커피

출판사 : 늘푸른 소나무 2004. 12.25

지은이 : 원재훈

읽은날 : 2011. 6월 도쿄에서

바다와 커피라는 두 주제는 뭔가 어울리는 느낌이다.

진한 색깔, 진한 향기, 그리고 인간의 감성에 울리는 고독이라든지 낭만이라든지, 그리움

그런 것들하고 맞닿아 있는 느낌을 주는 두가지 소재를 함께 담아 만든 소설책, "바다와 향기"

처음 느낌처럼 끝까지 그 느낌을 유지해주는 책이었다. 그런데 조금 밋밋하다랄까,,,

그건 아마 작가가 원했던 감정일지도 모르겠다. 바다 또는 커피가 은은하게 늘 느껴지듯이~~

커피 만드는 방법이 여러가지 인것도 처음 알았고,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

이가체페, 에스프레소, 모카 마타리,,, 등등

요즘 커피샵에서 파는 카페오레나 마키야토,,,이런게 크림 종류를 섞어서 요즘 취향에 맞게 만든 거라면

위의 커피 종류는 말 그대로 순수한 커피 원액의 종류를 이야기 하는 것 같다.

커피원두를 압착해서 만드는 방법, 거름에 걸러서 만드는 방법,,, 이 분야도 참 복잡하구나 생각이 들었다.

커피 매니아들은 그런것들을 구별하고 맛볼줄 아는가 보다는 생각도 들고,,,

나한테 커피는 그냥 맥심이냐, 테이스트초이스냐 하는 일회용 커피로밖에 구별이 안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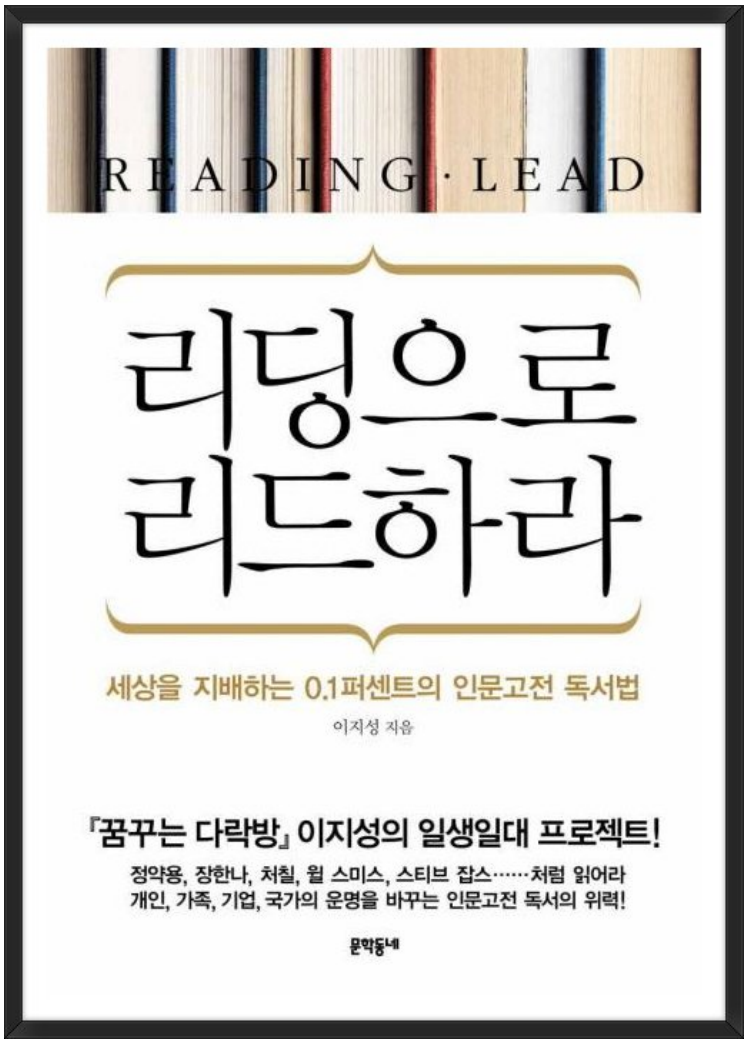
하여튼 커피와 바다를 배경으로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그 풀이의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

읽다보면 사람이 주인공인지 커피가 주인공인지 헷갈리기도한다.

커피를 좋아하는 여자라면 읽기에 딱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

● 리딩으로 리드하라 --- 이지성

2011.06.16 12:50



책이름 : 리딩으로 리드하라

출판사 : 문학동네 2010. 11.17

저　자 : 이지성

읽은날 : 2011. 6월초 도쿄에서~

제목이 좀 재미있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Reading 으로 Lead 하라.... 뜻인 것 같은데

Leading으로 Read한다는 건 말이 안되니,

우리나라에서는 "R"사운드와 "L"사운드가 비슷하니 제목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낸듯하다.

자기계발서 종류의 책이라 생각되는데 인터넷 서점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하고,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해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받은 책인데, 내가 본 자기계발서 중 그나마(?) 좋은 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나마라고 굳이 붙인 이유는 내가 자기계발서 책을 안좋아하기도 하고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책을 통해서 얻는 것은 피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작가의 경험과 여러 사례 분석을 통해 인문 고전의 중요함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그것이 교육의 지름길이고, 수많은 성공한 인생이 선택한 길이라고 설명한다.

대부분 맞는 이야기가 많고 나도 새삼 그 중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하게 된 부분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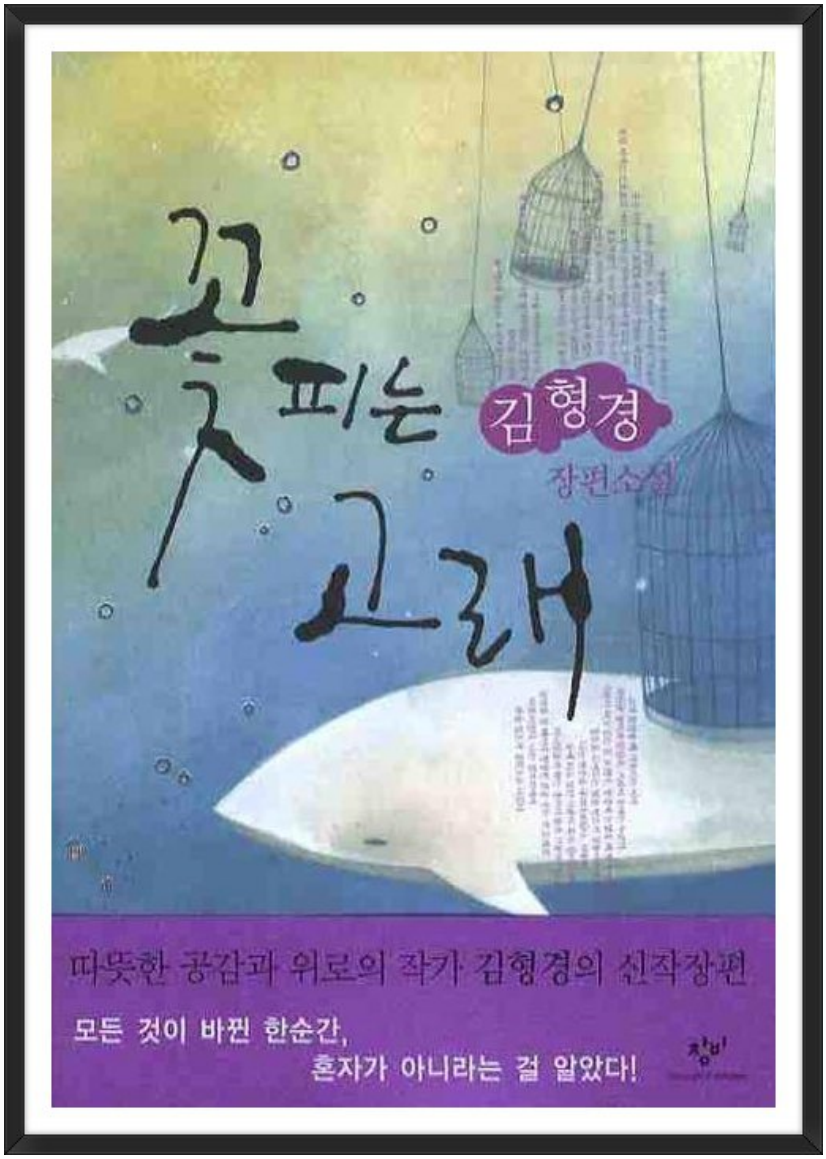
그러나 일부분 공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일부 주장은 나의 생각과는 좀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설득력있고 요즘세상에 인문고전의 중요성을 깨우쳐준 노력에 정말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다.

.....

● 꽃피는 고래 --- 김형경 장편소설

2011.05.29 10:19



제목 : 꽃피는 고래

작가 : 김형경

출판 : 창비출판사 (2008. 6.10 출판)

읽은날 : 2011. 5. 29 일요일 (비오는 새벽에~)

새벽3시 반에 박지성 출전 경기 -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 보고 다시 잠자기 애매한 시간이라

이 책을 읽었다.

박지성 출전경기는 일본방송으로 봐서 화면에만 집중하다보니 눈도 좀 아픈데 조금만 읽다가

잠오면 자야지 하는 생각으로 책을 들었는데 읽다보니 손을 놓을수가 없었다.

젊었던 시절(지금보다 훨~) 술마시고 많이 불렀던 노래 ' 고래사냥 ' 이 계속 맴돌게 하는 책이었다.

나도 그랬었다. 신화처럼 숨을 쉰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늘 궁금했었다..

고래를 잡으러 간다는 것도 상상이 안되는데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는 도대체 뭘까? 궁금했더랬다.

아주 어렸을적 읽었던 '백경(흰고래 모비딕)'이나 '노인과 바다'를 다시 떠올려보면서

'바다' '고래' 가 주는 그 어떤 무한에 가까운 의미, 미지의 세계, 또는 거대하고 웅대한 이미지는

인간이 갖고 살수밖에 없는 유한함과 약함에 대비되는

신비감이 서려있다.

김형경님의 소설은 예전에 다른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 마음을 파고드는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을 애리게 한다.

성장소설 같기도 하고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상처치유적 소설 같기도 하고,

무엇이라고 분류하던간에 이 소설을 읽으며 내마음속에 살아있을지도 모를 고래를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았다. 아니 내주변에 있는 바다같은 사람들 그들이 있어 행복함을 느낀다.

언제가 술마시고 노래방아닌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며 이 노래 함 불러보고 싶다...

"술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 앉았네~~

자 떠나자 ... 고래 잡으러.....

*** 책에 나온 '바다' 이야기 하나 더 ...

" 파도가 온 바다를 돌아다니며 이보쇼.. 바다가 어디 있는지 아오? 물어본다고 한다~~ "

어떻게 보면 웃긴 이야기 같기도 하고 깊은 생각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나는 문득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 그렇게들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바다이면서 바다를 찾아헤매는 파도처럼~~ 그렇게 살고들 있는건 아닌지...

● 3분 고전(古典) --- 박재희 지음,,

2011.05.22 03:12



책제목 : 3분 고전

지은이 : 박재희

출판사 : 작은씨앗(초판2010.11.7---- 2011.3.11 초판47쇄 본으로 읽다)

읽은날 : 2011. 5월 일본에서~~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인문학은 고전을 찾아 읽고 과학은 최신을 찾아 읽으라고~~"

가끔 그 말이 생각나는 이유가 고전을 보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에 읽은 이 책은 가끔 라디오에서 아침시간에 3분 고전으로 듣던 기억이 있어 전공책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서

함께 끼워넣어 주문했던 책인데 재미있게 잘 읽었다. 생각도 많이 하고~~

특히 내가 일본에서 대지진을 겪고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고전에 나오는 사자성어들이 떠오르던 참이었다.

대지진과 그 이후 여진으로인한 어떤 공포감, 그리고 원자력 폭발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물도 사먹어야되고~~

그런게 힘들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연구분야가 관련된게 많아서 오히려 또 배우고 공부할게 많아졌고 나에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할 많은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게 참 인생은 '새옹지마'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으로 공부하러 오는게 처음엔 좋았는데 지진으로 안좋아졌다가 다시 많은걸 경험하게 되서 좋아졌으니~~

앞으로 또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이 책의 첫번째 항목이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문장인데

도덕경에 나오는 노자의 말씀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물처럼 사는것 이라는 뜻인데

순리에 맞게 살아가야한다는 뜻이겠지요,,낮은곳으로 임하고 물처럼 만물을 키워주지만 자신의 공과에 집착하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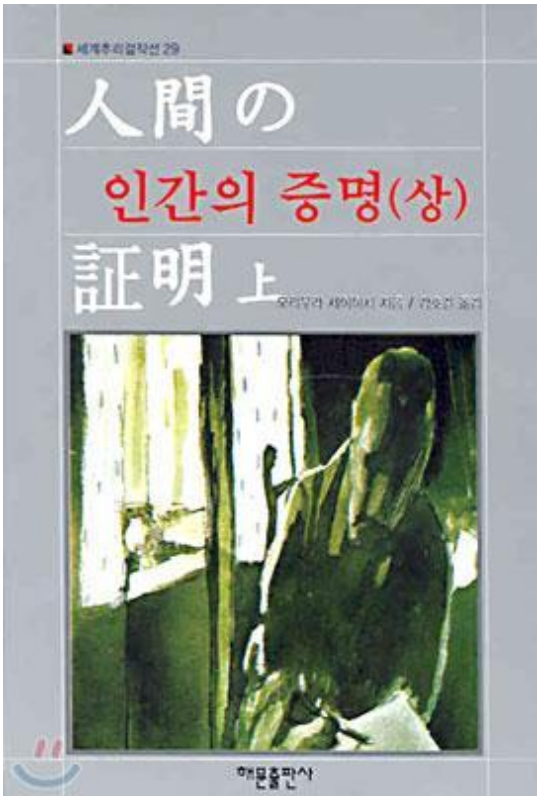
물처럼 산다는게 쉬운일이면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책의 종류중에서 이 책과 같은 책은 집이나 사무실 주변에 놓고서 두고두고 생각날때마다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는

그런 책이다....

● 인간의 증명(드라마 로얄 패밀리 원작) --- 모리무라 세이치

2011.05.08 01:13



책제목 : 인간의 증명

출판사 : 해문출판사 (1991.11 초판, 2011.3.15 중쇄로 출간된걸 읽다)

지은이 : 모리무라 세이치(森村誠一)

읽은날 : 2011. 5. 5~7일

일본에 와서 처음 읽은 소설책이다. 물론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읽었다.

모르고 인터넷 서점 뒤지다 사게된 책인데 오래된 책이 다시 출간된 이유가 알고보니

요즘 한국 드라마로 상영중인 '로열 패밀리'의 원작이기 때문인가 보다.

그 드라마 안보고 있어서 드라마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고,

일본에서는 오래전에 드라마와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다고 한다.

내용과 구성이 튼튼하고 일본에서 대중에게 검증된 작품이라 한국에서도 드라마로 만들었지 않았나 싶다.

처음 읽을때 추리소설이라고 되있길래 추리소설로 기대하고 읽었는데

내 느낌은 추리소설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하는 소설작품처럼 느껴졌다.

내가 생각하는 추리소설은 흥미진진하게 독자와 작가가 두뇌싸움을 하던지, 반전을 기대하던지 하는 구도인데

이 책은 추리소설이라고 보기엔 단순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회 고발 성격을 가진 소설처럼 읽혔다.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내용이 전개되는데 사회의 빈부격차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까발린다. 그 문제의식이 이 소설의 근간을 이루고있다는 생각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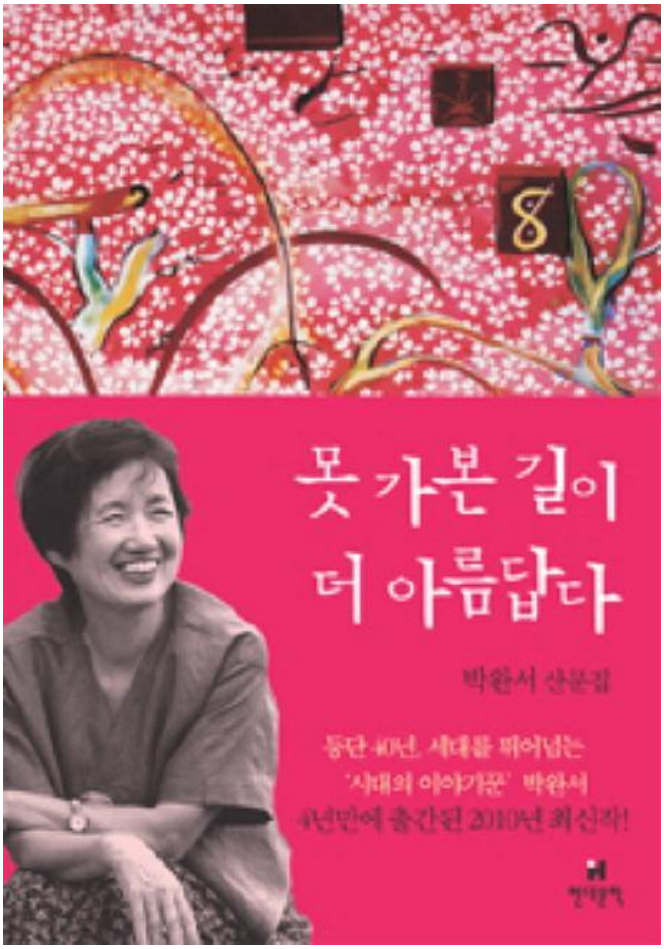
그리고 미국점령기에 일본, 고도로 발전된 일본의 도쿄와 미국의 맨하튼의 허황된모습뒤로 숨어있는 속살들,

가족의 파괴, 지도층의 가식 등이 이 책의 배경으로 단순한 추리소설 이상의 읽는 재미를 배가시켜준다.

제목 '인간의 증명'은 지금 우리가 과연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고있는지 증명해야된다는 걸 일깨어준다고나 할까...

● 못가 본 길이 더 아름답다 --- 박완서

2011.05.01 08:21



책제목 : 못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출판사 : 현대문학 2010.8월 출간

읽은날 : 2010 년 10월 즈음

올해 초 (2011.1) 박완서 님이 돌아가셨다. 내가 그분의 작품으로 마지막 읽은 책이 바로 이책이 되버렸다.

그 전 작품은 다시 읽어볼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새 작품은 읽어볼 수 없게 되었다

책제목을 보는 순간 떠오르는 시(詩)가 하나 있다.

고등학교때 배웠는지, 그 나이때 유행했던 책받침이나 예쁜 편지지에 적혀있었던지

아니면 그때 암송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보지 못한 길' ...이라는 詩 다

제목만으로도 내용이 대충 짐작이 갈만한 詩이기도 하지만

또한 누구에게나 삶의 경험상 동감이 갈 수 밖에 없는 시이기도 하다.

내 생각에 '못가본길이 더 아름답다' 는 말은 두가지 의미로 읽히기도 한다.

'못가봐서 아쉽고 후회가 된다', 라는 뜻과 '못가본 길이기에 더 아름답게 생각될 수 있다',

뭐 어느쪽으로 읽든 상관은 없지만

앞은 주로 감성적인 사람의 판단이고 뒷 쪽은 좀 비판적이거나 분석적인 사람들의 판단이지 않을까도 싶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라는 말처럼 인간은 어느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있기도 하고

최선인지 차선인지 최악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그 결과도 자기에게 돌아오지만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련이 남는다.

때로는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어느길로 가야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다.

먼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꿔놓은 것이라고"

삶의 마지막에서 박완서 작가께서도 못가 본 길에 대한 여러가지 회상이 남았는가 보다.

이 책에서는 집앞 마당에 풀을 뽑으며 먼저간 아들을 생각하며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만난 사람, 만난 책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엮여있다.

언제나처럼 잔잔하고 그분의 소설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삶속에서 나오는 진솔한 이야기들로 묶여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 그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른 박완선 님의 책들이다.

소설인지 자기 이야기인지 구분을 두지 않고 쓰는 작품이기에 읽을때도 굳이 허구인지 사실인지 고민할 필요가없다

그말은 그만큼 감정이입이 쉽고 사실성이 두드러진다고나 할까..

40살이 넘어서 글쓰기를 시작했다는 데 그분의 작품은 늘 전쟁으로 겪었던 아픔과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에세이 집들은 살면서 느끼는 엄마의 푸근함 같은것을 나에게 주었다.

때로는 여성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던져주기도 하고, 분단으로 인한 상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남겨지는가도

생각해보게 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은 전쟁의 원인, 이념, 이런것들을 주제삼지 않고 그 과정을 겪는 가족들과

그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흔적을 남기는지 자기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준다.

여성작가의 계보를 잇는 박경리 선생님도 가고 박완서 선생님도 가고,,, (김응룡 말투가 되버렸네..)

그 시대가 저물어가는 느낌이다. 내 나이도 이제 그럴때인가 보다.

앞 세대를 살아가던 분들의 글과 생각을 읽으며 그들의 품속에서 자라왔는데 이제 그분들이 떠나갈 나이때가 되었다는 거,,,

나의 책 이야기(2011년)

블로그 즐거운하루 http://blog.daum.net/pjjshk

저자 푸른하늘

발행일 2012.07.27 09:39:24

Daum 블로그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